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서현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 논문

제 7 차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 교육에 대한 연구

200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김 현 정

제 7 차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정체성 교육에 대한 연구

서 현 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김 현 정

인 준 서

김현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족정체성 교육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세계화 추세 속에 사회과 교육에서 민족정체성 교육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7 차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민족정체성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 보고 앞으로 변화될 세계에 살아갈 우리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민족정체성 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는 제 7 차 사회과 교과서 즉, 10 학년 공통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의 교과서의 민족정체성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교과서 내용분석을 통해 민족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족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할 조작적 개념은 근대주의 시각에서 강조하는 ‘상호의존’ 과 영속주의 시각에서 강조하는 ‘경쟁’ 의 개념이다. 이들 개념의 사용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사회교과에서의 민족정체성의 성격을 분석했다. 이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사회과의 민족 정체성 교육은 영속주의 시각의 정체성 교육과 근대주의 시각의 정체성 교육이 골고루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민족 정체성 교육의 다른 면을 발견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 정체성 교육은 영역별로 내용을

강조하는 측면을 달리하고 있다. 둘째, 정치 영역의 경우 국제사회의 현실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인식하면서 상호의존적 측면만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탈냉전 이후 협력적 국제질서의 확대에만 주목하여 갈등이나 그 이면의 문제에 대한 제시가 부족한 것이다. 셋째, 경제 영역에서는 치열한 경쟁 상태를 강조하며 국가 발전을 위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이는 정치 영역과는 대치되는 인식으로 학생들의 인식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환경 문제와 같이 현재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의존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교과서는 교과마다 내용이 다른 민족 정체성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교과에서는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영속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고 경제 교과에서는 ‘경쟁’을 강조하는 근대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과에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또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사회과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인으로서의 가치·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민족 정체성 교육과 세계 시민성 교육을 시행할 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러한 태도는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사회과는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시민성 교육의 핵심을 담당하는 교과이다. 학생들에게 적합한 정체성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 정체성 교육은 사회과 교과 간 내용의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며, 어떤 내용과 형식의 민족정체성 교육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 논의와 이에 근거한 교육 내용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6
1. 세계화의 의미와 특징	6
2. 세계화 시대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	9
1) 영속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	9
2) 근대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	12
3) 절충적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	16
3. 민족 정체성 교육과 사회과	19
1) 민족 정체성의 개념과 기능	19
2) 세계화와 정체성 교육의 변화	24
3) 민족 정체성 교육과 사회과	27

Ⅲ. 연구방법	30
1. 연구대상	30
2. 연구절차	33
3. 연구 분석 기준	33
1) 민족 정체성 관련 서술의 분석 준거.....	33
2) 민족 정체성 분석 준거로서 ‘경쟁’ 과 ‘상호의존’ 의 의미 ...	39
3) ‘경쟁’ 과 ‘상호의존’ 에 해당하는 서술 조건	40
4. 연구방법	47
1) 분석 범주	47
2) 분석 항목	47
Ⅳ. 민족 정체성 관련내용 분석의 주요 결과 및 논의	49
1. 고등학교 사회과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 분석	49
2. 각 교과별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 분석	52
1) 10학년 사회 교과서 분석 내용	52
2)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분석 내용	59
3)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분석 내용	65
4)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분석 내용	69

V. 결론 및 제언	76
1. 분석 결과의 요약	76
2. 시사점 및 제언	79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I> 연구대상	32
<표 II> 민족정체성 교육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한 증거	38
<표 III> '경쟁'과 '상호의존' 및 중립적 서술 관련 분석 조건 요약	46
<표 IV> 고등학교 사회교과 (10학년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과서)분석	51
<표 V> 고등학교 10학년 사회교과서 출판사별 분석	57
<표 VI> 고등학교 10학년 사회교과서 영역별 분석	58
<표 VII>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단원별 분석	62
<표 VIII>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출판사별 분석	64
<표 IX>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단원별 분석	67
<표 X>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출판사별 분석	68
<표 XD>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단원별 분석	73
<표 XII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출판사별 분석	75

논문개요

본 연구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족정체성 교육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세계화 추세 속에 사회과 교육에서 민족정체성 교육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7 차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민족정체성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 보고 앞으로 변화될 세계에 살아갈 우리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민족정체성 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는 제 7 차 사회과 교과서 즉, 10 학년 공통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의 교과서의 민족정체성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교과서 내용분석을 통해 민족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족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할 조작적 개념은 근대주의 시각에서 강조하는 ‘상호의존’ 과 영속주의 시각에서 강조하는 ‘경쟁’ 의 개념이다. 이들 개념의 사용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사회교과에서의 민족정체성의 성격을 분석했다. 이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사회과의 민족 정체성 교육은 영속주의 시각의 정체성 교육과 근대주의 시각의 정체성 교육이 골고루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민족 정체성 교육의 다른 면을 발견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 정체성 교육은 영역별로 내용을 강조하는 측면을 달리하고 있다. 둘째, 정치 영역의 경우 국제사회의 현실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인식하면서 상호의존적 측면만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탈냉전 이후 협력적 국제질서의 확대에만 주목하여 갈등이나 그 이면의 문제에 대한 제시가 부족한 것이다. 셋째, 경제 영역에서는 치열한 경쟁 상태를 강조하며 국가 발전을 위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이는 정치 영역과는 대치되는 인식으로 학생들의 인식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환경 문제와 같이 현재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의존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교과서는 교과마다 내용이 다른 민족 정체성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교과에서는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영속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고 경제 교과에서는 ‘경쟁’을 강조하는 근대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과에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또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사회과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인으로서의 가치·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민족 정체성 교육과 세계 시민성 교육을 시행할 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러한 태도는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사회과는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시민성 교육의 핵심을 담당하는 교과이다. 학생들에게 적합한 정체성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 정체성 교육은 사회과 교과 간 내용의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며, 어떤 내용과 형식의 민족정체성 교육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 논의와 이에 근거한 교육 내용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화는 경제, 환경,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동태적 흐름으로서의 세계화는 세계체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영원할 것만 같던 국민국가의 위상마저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국가의 통제 하에 존재했던 국민국가의 국가 정체성은 세계 시민사회의 출현으로 예전처럼 굳건하지 못하다.

과거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에서는 학교 교육이 내부 통합의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여 민족주의 형성에 적극 개입했다. 반면, 오늘날에는 외부적으로 다른 민족 국가에 대해 배타적인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상호 유대와 공존의 흐름을 인정하면서도 고유성을 중시하는 전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즉, 세계 시민성이 강조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주체는 국가이다. 세계사회에서 한 사회를 정당하게 대변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조약, 협상, 파병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세계사회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받아들이면서도 국가적 특수성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혼란의 원인으로는 강한 민족적 성격, 단일민족적 자긍심 그리고 분단 국가라는 국가적 특징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민족과 두 개의 주권

국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통합의 요구가 남아있다.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지금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 차원의 정체성을 필요로 한다.

이미 여러 논문에서 세계화의 특질에서 기인한 다차원적 정체성의 혼란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규범적 논의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교과서 내용에 대한 분석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족정체성 교육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세계화 추세 속에 사회과 교육에서 민족정체성 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7 차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민족정체성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 보고 앞으로 변화될 세계에 살아갈 우리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민족정체성 교육의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그 성격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그 결과를 정형화하여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위적, 규범적 차원에서의 연구만으로는 사회과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민족정체성 교육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도 어렵다는 인식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며, 그럼에도 본 연구는 민족정체성 연구에 관한 다른 선행연구를 조망하면서 사회과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민족정체성 교육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고자 노력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세계화 시대 민족 정체성 교육의 개념을 살펴보고,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여, 현재 변화되고 앞으로 더욱 많은 변화를 하게 될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변화하는 교육현실에 대한 논의로 세계화 시대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본다. 세계화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사회과 교육에서의 정체성 교육에 변화를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세계화와 함께 사회과 교육의 시민성 교육에서 중시하게 된 세계 시민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체성’ 문제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민족 정체성 교육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민족 정체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민족 정체성 교육의 사회과교육적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넷째, 세계화 시대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민족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다섯째, 제 7 차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민족 정체성 관련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민족 정체성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지향적인 민족정체성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민족정체성 교육의 성격이 인류의 공존과 협력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민족적 정체성과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구체적인 분석 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근대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에서 강조하는 인류의 공존·협력과 영속주의 시각에서 강조하는 민족정체성과 경쟁력 강화의 가치가 모두 제시되고 있는가? 이 둘 중 어느 가치를 더 강조하고 있는가?

② 근대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과 영속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 등 별로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가?

③ 각 영역에서 강조하는 민족정체성 교육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분석은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주제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하며 이를 통한 교육방향에 대한 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 실천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둘째, 본 연구의 주제인 민족 정체성 관련 내용 분석 기준은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여 객관화를 시도하였으나 민족 정체성의 특성상 분석 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셋째, 민족 정체성 교육 관련 주제와 핵심 요소의 분석에 있어서 특정 개념인 민족 정체성에 관한 한정된 내용 요소를 추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1. 세계화의 의미와 특징

세계화는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회과 교육의 영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세계화란 무엇인가? 세계화에 대한 정의는 각 영역에서 나름의 목적에 맞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의 범위만큼이나 광범위하다. 미국의 전국사회과위원회(NCSS)는 세계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세계화 현상은 (1) 의사소통과 교통수단의 지구 전체 시스템의 혁명 (2) 지방,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경제의 세계 전체 경제로의 편입 (3) 일련의 특정 지방, 국가, 지역적 문화와 함께 존재하는 세계 문화로서 맺어지는 사회들 간의 늘어난 상호 작용 (4) 국내와 구체적 정치 사이의 전통적 경계선을 서서히 파괴하는 전 세계적 시스템의 발생 (5) 지구 생태계의 인간 행동의 늘어난 충격, 그리고 시스템의 제한으로부터 떠맡겨지는 인간행동에 있어서의 증가된 속박 (6) 인류의 일원으로서, 지구의 주민으로서 그리고 세계화 시스템의 참가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을 강화하는 세계적 지각인식의 확대 등이다(John Chapman, M. Eugene Gilliom, James M. Becker, Jan Tucker, 1994: 71).

따라서 세계화란 '고도의 과학 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쟁이나

협동을 통해 삶의 터전을 전 세계로 확대해 가는 현상'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강동연, 2000: 9-10).

한편 기든스(Giddens, 1998)는 세계화를 하나의 지향점으로 인식한다. 기든스는 세계화가 중심국이 패권을 확산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문화 의식과 주권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든스는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향해 나아가야 할 모습으로 '세계주의적 민족(cosmopolitan nation)' 또는 '세계시민사회' 를 제시한다. 이는 폐쇄적인 민족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 대신 다원적인 세계, 바람직한 세계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다(Giddens, 한상진 역, 1998: 265). 이렇듯 세계화는 단시간 내에 특정 공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인간과 관계된 모든 방면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변화를 포괄한다(마미화, 2005: 15).

이렇듯 세계화의 다양한 정의처럼 세계화 현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세계화 현상의 가장 중심적인 측면은 역시 세계 경제의 통합 수준이 심화된 점이다. 무역, 투자, 금융, 기술, 정보 등의 흐름이 대규모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세계적 노동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제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세계 경제가 하나의 경제 체제라는 인식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던 기업이나 지방 경제가 세계 경제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고, 국민 경제에 대한 국가의 자율적 통제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한재은, 2008: 42-43).

세계화 현상의 두 번째 측면은 수송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지리적 거리의 의미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적·물적 교류와 문화적 접촉의 기회가 크게 증가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위성을 이용한 국제적 방송네트워크의 설립으로 뉴스, 오락물, 광고 등이 다수 국가들의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동시에 전달되고 있다. 즉 세계화 현상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 문화, 정보, 기술 등 각 분야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세 번째 세계화 현상은 정치적 측면에서도 나타나는데 국가 안팎에서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여 개인, 기업, 국제적 비정부 단체, 국제기구들 사이에 복합적이고 긴밀한 상호작용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내 정치, 국제 정치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하고 정치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를 요청하고 있다.

끝으로, 세계화 현상은 지방화 현상을 동반한다. 지방화는 지역 사회 공동체가 정치적 의사결정과 집행, 경제적 자원의 관리, 문화의 창조 및 향유 등의 주요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중앙 중심의 체제로부터 지방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화 현상을 보다 넓게 보면 지방자치의 의미뿐 아니라 소규모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위한 정치를 포함한다. 즉 소수민족의 자치와 분리 독립의 요구, 장애인들의 권리요구, 동성애자들의 권리 요구 등 다양한 특수 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국가에 대한 새로운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김태준, 2003: 21-22). 즉, 세계화는 보편성과 동질성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개별성과 특수성을 요구한다.

2. 세계화 시대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

여러 분야에서의 변화를 가져온 세계화는 민족 정체성 교육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럼 세계화 시대에 민족정체성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민족정체성 교육에서 민족주의나 민족국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그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 지금부터 민족정체성 교육의 세 가지 흐름을 살펴보기로 한다(이지명, 2000: 51-68).

1) 영속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

이 시각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화 흐름 속에서도 민족·민족주의가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역할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세계화의 반대 경향으로 전쟁과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민족주의의 극대화 과정에 주목한다. 이 시각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또는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와 같은 물음에 대해 집단(민족)정체성을 역할을 중시한다.

민족국가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관점으로 기든스의 주장을 보자. 그는 민족국가로의 지향은 인간사회의 본질에 가장 합당한 사회제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며 그러한 성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Giddens, 1993 : 428).

린드의 경우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전개한다. 국제정치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힘은 민족주의이며, 민족주의의 쇠퇴를 논하는 것은 거대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그는 민족주의가 지난 200년간 가장 강력한 정치적 힘이 되어 왔다고 보고 있다(Michael Lind, 1994: 87-89).

민족·민족주의 유지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스미스를 들 수 있다. 그는 민족·민족주의를 근대 역사적인 산물로 파악하는 근대주의적 민족주의 시각에 반대한다. 민족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전 생산양식을 관통하는 불변적인 것”이며 “민족은 결코 상부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하부구조”(A.D.Smith, 임지현 역, 1980: 313)라고 주장한다. 민족은 근대 민족 국가 형성기에 국민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에 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재한다는 것이다. 민족은 매우 강력한 사회적 유대이며,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이해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민족주의는 이와 같은 근원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개인적 정체성의 확실한 원천이 되어왔다. 민족은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 윤리 공동체로서 상상됨으로써 자기 결정을 위한 중요한 초점을 제공해 왔다(Giddens, 1998: 197)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긍정적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와 동시에 민족국가는 그 구성원들에게 충성심과 자긍심을 일깨워 민족의 원동력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한 민족의 앞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민족의 독특한 덕목과 역사, 문화 등을 전수해 줌으로써 그 민족은 일정한 특징을 갖춘 확고한 공동체로 지속·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민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민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려면 자신의 민족 국가의 독특한 덕성과 덕목을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하며, 바로 이 과정에서 민족의 정체성과 동일성을 확립하려는 교육이 진행된다.

이러한 교육은 근대 국민국가가 성립한 이래 공교육이 국민 형성(nation building)을 목표로 교육을 시작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간의 전쟁이나 경쟁에서 자국의 생존을 지키고, 국가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개인의 능력 함양과 국민적 통합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과 같이 분권적인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국민 감정의 육성’을 강조하였고, 미국은 사회 통합을 위한 ‘올바른 시민’의 육성을 민족 교육의 목표로 내세웠다. 우리의 경우는 해방이 되어 좌우 이념 대립의 구도 속에서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 통일의 민족적 과제를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통합보다는 상처받은 민족적 감정을 치유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요청되었다(심성보, 1995: 284).

이에 따라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학교 교육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애국애족교육’을 진행하여 온 것이다.

이런 경향의 민족주의는 자기가 소속된 민족의 힘, 부, 지위를 증대하고 독립과 발전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는다. 자기 민족의 독립과 발전을 강조하다 보면 타 민족과의 갈등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의 증대는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을

유발하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다른 민족 혹은 국가와의 경쟁에서 자국 혹은 자기 민족은 반드시 살아 남아야 함은 물론이고 또한 부강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또한 타민족·타국과의 경쟁에서의 승리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 경쟁력 강화에 대한 교육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교육의 흐름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자기 문화의 우수성만을 강조하게 되고 다른 문화의 수용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다.

2) 근대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

현대 국제사회의 몇 가지 중요한 변화, 즉 세계 정부로의 지향으로 여길 수도 있는 국제기구의 등장, 자본 국제화의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화 사회의 도래 등으로 민족주의와 민족국가는 소멸될 것으로 보는 자유주의적 시각이 있다(이지명, 2000: 60).

이 시각에 의하면 민족주의는 세계화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이며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정체성 교육에서 민족과 민족주의는 불필요한 것이며 세계주의를 실현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 관점은 민족 정체성 문제를 민족국가의 권력과 강대함에 대한 긍지보다는 오히려 ‘보편적 이념’을 인정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민족정체성은 역사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내용과 구조에 따라 언제나 바뀔 수 있다고 보는 논리이다(이지명, 2000:61).

민족과 국가는 근대적 개념의 산물이며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은 실체에

의존하며 집권세력이 국가 성립시기 국민의 일체감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논리이다. 역사적으로 민족이나 국가는 오랫동안 존재해온 실체도 아니고 실은 근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특수한 현상이라는 뜻이다. 민족이 유구한 역사도 뿌리깊은 생명력도 갖고 있지 않다면 민족에 기반한 국가라는 존재도 다 만들어진 것이 되는 것이다.

앤더슨은 민족을 ‘사회·문화적으로 구축된 현상’으로 보는 인류학적 입장을 취한다.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는 자본주의의 대중매체 즉, 신문, 소설 등의 인쇄물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B. Anderson, 1996: 26).

후쿠야마는 탈냉전기의 민족주의의 약화를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이라 설명했다. 그는 서구의 자유주의가 모든 이념적 경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본다. 따라서 인류 역사에서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할 대안으로서의 이데올로기가 없으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역사 자체의 종말 또는 인류의 이데올로기적 진화의 종식이라는 것이다(F.Fukyuama, 이상훈 역, 1992).

홉스봄의 경우도 민족의 쇠퇴에 대한 측면에서는 견해를 같이한다. 그는 20세기 말의 민족주의 혹은 인종주의적 정치 현상은 19세기 초의 민족 또는 민족주의와는 기능적으로 다르다고 인식한다. 그는 민족주의는 더 이상 역사발전의 주요한 힘이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E.J Hobsbaum, 1994: 216). 또한 민족주의를 근대적 현상으로 규정하며 세계화의 진전으로 쇠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E.J Hobsbaum, 1994: 217).

드러커의 경우는 민족주의 쇠퇴를 다른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그는 국가의 경제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자본의 국제화, 민족적 동질성을 파괴하는 정보의 통제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민족주의는 포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도 환경, 국제적 범죄, 군비통제 등의 산적한 문제는 민족주의에 기초한 정체성을 흔드는 범 지구적 문제들로 규정한다. 즉, 문제의 양상이 하나의 국가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기구는 개별 국가의 주권의 장벽을 허물고 민족 국가의 시민과 조직들을 직접 통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어야 한다. 이런 기구들은 민족국가들의 상위에 존재하는 초월적 기구이다(Peter F. Druker, 1993: 220).

즉, 자본, 정보, 환경, 범죄의 세계화로 인해 민족국가는 자신의 주권을 훼손당하게 되고 이 가운데 개별국가의 주권을 초월한 직접적인 통제력을 지닌 초국적 정치기구가 건설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민족에서 찾던 자신들의 집단 정체성을 초국적 정치체계 혹은 세계정부에서 찾게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닐젠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세계 정부에 대한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 정부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입헌적 민주제와 같은 민주정부이고 연방정부여야 한다고 말한다(Kai Neilsen, Steven Luper-Foy ed, 1988: 265). 느슨한 연방제도를 가진 세계정부는 다양한

문화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독립주권을 양도하는 체제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닐젠에 따르면 세계정부의 느슨한 연방주의는 그 구성원들의 삶의 중요한 영역들에서 먼저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고, 민족국가 체제에서보다 상호 효율적인 협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Kai Neilsen, Steven Luper-Foy ed, 1988: 266). 그래서 민족국가 없이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즉, 근대주의 민족 정체성의 시각에서는 국가 간의 상호의존적 상황을 중시하게 되고 국가 간 상호의존성 및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더 나아가 민족국가를 초월하는 초국가적 정치체계의 수립에까지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민족이나 국가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면 국가 간의 경쟁이나 대립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의 발전이나 부강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한 교육도 필요 없다. 오히려 상호의존적인 국제 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강조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태도와 의무를 강화하는 교육을 시행할 것이다

정체성 교육은 민족 정체성 교육이 지니는 배타적 성향을 희석하고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이나 경쟁심보다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나 보편적 인권의 존중을 더욱 강조하는 교육을 시행할 것이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전 지구적 문제의 심각성 및 그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동과 상호의존적 환경에 대한 교육에 집중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세계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독립 주권을 양도하는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세계 정치 중심의체로서 민족주의가 생명을 다했음을 주장하는 위의 논의는 궁극적으로는 세계 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정치체제의 형성에 역행하는 장애물로 민족주의는 제어되고 극복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이지명, 2001: 66).

3) 절충적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

지금까지 세계화 추세에 따라 민족·민족주의의 양극단의 관점을 살펴 보았다. 한편에서는 민족이나 민족주의는 과거에 그러했듯이 언제나 개인의 정체성의 고향이자 강력한 본거지로 작용할 것이며 세계화 흐름은 오히려 이런 경향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따른 정체성 교육은 국제 사회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고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여전히 민족국가는 의미 있는 정체성 단위이며,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족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이나 민족주의가 더 이상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정체성의 영역에서의 개인에게 더 이상 소속감을 제공해 줄 수 없으며 이제는 더 큰 공동체에 정체성의 영역을 넘겨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정체성 교육의 내용도 민족국가의 발전이나 국제적 경쟁에서의 승리의 중요성에 대한 것보다는 국제적인 환경문제의 발생과 인류 공통의

과제에 대한 국가간 협력이나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강조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나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민족주의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어떤 내용의 민족주의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민족주의는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함께하는 동태적인 개념이다.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서부터 우리는 민족주의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변화는 가만히 현상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런 변화를 만들기 민족정체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변화하지 않는 민족주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라이시의 영속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경고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생각은 국가 내의 상호 희생을 이끌어 내지만 쉽게 외국의 모든 것에 대한 맹목적 애국주의적 편견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Reich, Robert B, 1995: 333). 이런 특성의 민족주의는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며 그들이 이긴다는 가정을 갖고 공공의 가치를 침해하며, 국민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그들 자신의 이익만을 증진시키려고 하고, 다른 국가들도 이에 대응하여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는 인류가 당면한 환경문제나, 인권문제 등의 공통의 과제에 대한 해결을 어렵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유연한 민족주의를 만들기 위한 민족정체성 교육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먼저 정체성 교육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의 중심에는 세계화의 흐름이 있다. 과학의 발달, 특히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 생활을 여러 가지 면에서 바꾸어 놓고 있다.

여전히 우리가 민족국가의 발전과 부강을 꿈꾸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민족주의가 적응하여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종적, 종족적, 혈통 중심적 민족주의에서 시민적, 공민적,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적, 공민적 민족주의는 민족 구성원이 평등한 권리를 보유하는 시민으로 구성되며, 주권이 모든 국민에게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적 성격을 갖는 민족주의이다(박정원, 1997: 69).

하버마스는 민족 정체성과 시민권의 연관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위르겐 하버마스, 1996: 73-92). 그는 민족정체성에 의해서 시민이 통합되는 과정이 아니라 시민권에 의해서 민족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족적이나 문화적인 특수성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정체성의 추구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민족 정체성 교육은 영토적 종족적 배타성에 기반한 정체성 교육이 아니라 그런 기반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지명, 2000: 67).

다시 말하면, 정체성 교육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기존의 배타적이고 지나치게 경쟁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화로 인하여 등장한 다양한 정체성의 단위들에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기를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가치들도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다른 가치들이란 보편적인 인권, 세계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더 큰 연대 및 상호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즉, 상호의존적 환경에만 교육의 방향을 조정해 ‘너’와 ‘나’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게 되어 나와 민족을 잃는 교육도 아니며, 그렇다고 다른 이가 경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패배하게 되며, 치열한 경쟁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경쟁력의 강화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3. 민족 정체성 교육과 사회과

세계화 시대 민족 정체성 교육의 세 가지 방향을 살펴보았다. 세계화 시대 민족 정체성 교육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민족 정체성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1) 민족 정체성의 개념과 기능

(1) 민족 정체성 개념

민족정체성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며 어느 학자의 개념이 정확하고 어느 학자의 개념이 맞지 않다고 말하기도 곤란할 만큼 다의적인 개념이다. 먼저 민족 정체성과 혼용되는 표현부터 살펴보고 그 후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자.

민족정체성(national identity)은 보통 민족의식(national consciousness), 민족감정(national sentiment), 국민성 또는 민족성(national character)과 일상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민족의식이란 자신이 하나의 민족에 속하고 있다는 자각임과 아울러 자신의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생동적인 감정이며 자부심이다. 민족감정은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을 구별하는 데서 파생되는 자연스런 감정으로 우리 것에 대한 애착심과 긍지 및 자부심 등이 그 요소라 할 수 있다. 국민성 또는 민족성은 한 사회의 성인 성원들 사이에 특징적인 상당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인성 특성과 형태로 정의된다(홍은화, 1995: 77).

민족 정체성이라 말할 때는 동질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민족적인 특성-개성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민족적 차원에서 자기 존재를 누구로 인식하는가(어떤 민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가)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 전자는 혈통이나 문화 같은 객관적 지표들의 차이에서 본 것이며, 후자는 개개인들의 소속의식으로 본 것이다. 이 소속의식으로의 민족 정체성은 민족적 공동운명의식이나 동포애-애국심 같은 본격적인 민족주의적 감정-사상의 정서적 토대가 된다 할 수 있다. 민족적 결속과 통합의 동력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은 전자보다는 이 후자적 의미로의 민족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지명, 2000: 39).

즉, 민족 정체성은 개인적으로는 특정한 ‘민족’의 일원이라는 심리적 귀속성의 근간이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 문화적 동일성을 구성하는

바탕이다. 그것은 성, 계급, 지역, 종교와 같은 다양한 집합적 정체성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적 기반을 갖고 있다(이지명, 2000:41-44).

블룸(Bloom, W.)은 민족정체성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민족적 상징들에 대하여 동일한 동일시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 민족의 상징들을 내면화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즉, 민족 정체성이 존재하면 민족적 상징들에 대한 위협이 되거나 상징들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의 심리적 집단(one psychological group)으로 행동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한다. 또한 그는 민족 정체성이 한 나라 안에서 가장 광범위한 정체성으로서 이론적으로는 민족 정체성의 대상 범위가 인구 전체를 포괄하며, 그것은 정치적, 종교적, 문호적, 에스닉적 차이들을 모두 초월한다고 주장한다(정호영, 2001: 69).

타미르(Tamir, Y)도 민족정체성이 성원들에게 근대적 삶의 노이로제(neurosis), 소외(alienation), 무의미함(meaninglessness)을 극복하고 존재론적 안정감(ontological security)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정체성 유형이라고 본다(정호영, 2001: 70).

홀(Hall, J. A.)도 마찬가지로 민족이라는 관념은 기본적으로 통합적 관념으로서 계급, 다양한 문화적 배경, 에스닉 배경, 지역적 배경 등을 모두 포괄한다고 본다(정호영, 2001: 71).

지금까지 논의한 여러 학자들의 개념 정의를 정리해 보면 민족 정체성은 인간이 갖는 정체성의 한 부분이며, 공유된 민족적 특성들로 인해 어느 한

개인이 어느 특정 민족 집단에 느끼는 소속감(a sense of belongs)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민족정체성을 ‘개인이 특정 민족에 소속되는 것이 자기에게 감정과 가치의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자기가 어떤 민족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라고 개념화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민족 정체성 교육은 개인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교육이다. 즉, 문화공동체로서 민족의 특수한 이야기를 존중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민족적 정체성의 확보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민족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한 민족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민족정체성의 기능

민족 정체성은 고도로 분화된 현대 산업사회에서 개인에게 의미 있는 심리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효과는 바로 민족이 갖는 고유의 힘과 역사의 격랑을 넘어 현재까지도 우리 삶에 존재하는 지속성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민족 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민족 정체성은 개인적 망각(personal oblivion)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역사적, 운명적 공동체’와의 동일시는 죽음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개인적 영생(personal immortality)을 확보하고, 망각됨으로부터 개인들을 구해내어 집합적 신념을 복원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워터만(Weterman, A, S.)도 민족 정체성 기능의 하나로 개인의 과거와 현재, 예기된 미래 사이에 주관적인 연속성을 제공한다고 하였다(정호영, 2001: 43).

둘째, 민족 정체성은 자부심을 제공하고 지위의 역전을 가능하게 한다. 민족 정체성은 개인적으로나 집합적으로나 자부심의 원천이 되며, 이를 통해 지위 역전(status reversal)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적으로는 자부심의 원천이 별로 없는 계층들에게 민족 정체성은 때로는 자부심의 원천이 되어 주며, 개인들은 민족과의 동일시를 통해 존재적 위엄을 유지할 수 있다. 민족적 수준에서도, 한 민족은 민족 정체성을 통해 지금은 비록 아니더라도, 세계가 언젠가는 선택 받은 민족인 자기 민족과 민족의 신성한 가치를 인식할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의 장구함과 풍부함,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을 발굴하고 그것을 현재에 되살리는 일이 민족 정체성 프로젝트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정호영, 2001: 72).

셋째, 민족 정체성은 우애(Fraternity)라는 이상을 실현하고 공동체를 형성한다. 민족 정체성은 개인-가족-에스닉 공동체 □민족을 관통하는 유대의 흐름이다. 문화적, 정치적 유대를 통하여 성원들 개인에게는 우애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민족에게는 공동체 형성의 수단이 되어준다. 이런 일들은 주로 퍼레이드, 기념식, 기념물, 선서, 화폐, 깃발, 영웅에 대한 찬양,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 등 의식이나 상징을 통해 이루어지며 민족 정체성을 통해 민족은 하나의 ‘거대가족(Super family)’이 된다(정호영, 2001: 73).

넷째, 대외적으로는, 민족 정체성이 문화적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풍부하고 장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은 그렇지 못한 민족에 대해 문화적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식인들은 보다 많은 공동체 역사를 발견하고,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화적이나 역사의 진실성은 역사의 풍부함과 다양함보다는 중요하지 않다(Smith, 1991: 160-162).

2) 세계화와 정체성 교육의 변화- 세계 시민성의 등장과 강조

최근 세계화 시대의 전개와 함께 지구상의 각 민족 간 국가 간의 긴밀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한 민족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은 다른 공동체와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차별성도 함께 강화됨으로써 사회에의 적응과 정체성의 문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서태열, 2004: 14).

이와 함께 사회과 교육에서 강조하는 시민성의 개념도 그 의미를 다양화하고 있다. 교육의 목표는 그 시대의 상황과 현실을 벗어나서 설정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의 중요 목표인 시민성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세계화 추세는 시민성의 조건들을 변화시키고 시민에게 3중적인 시민자격(국민성, 세계시민성)에 대한 정체의식(identity)을 요구하게 되었다(이승중, 1997: 51). 기존의 시민성이 국민 국가라는 울타리 속에서

대체로 단일한 지위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의미하였다면 세계화의 진행으로 대두된 새로운 시민성은 ‘같은 국민’이라는 의식보다는 ‘같은 인간’이라는 의식을 발달시켰다(설규주, 2001: 153-154).

왈쩌(Michael Walzer)는 시민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시민성을 공직(office), 책임, 부담(burden)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위, 권한(entitlement), 권리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왈쩌에 의하면 전자는 우리 삶의 중핵(core)이며 공동체주의적인 성격¹을 보인다고 하였다. 후자는 개인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입장에 더 가깝다. 그러나 모든 민족과 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는 규칙에 따르는 시민성은 지나치게 탈 역사적·탈 사회적 시민성의 위험이 있다(설규주, 2001: 152).

반면 너스봄(Nussbaum)은 애국주의 입장에서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를 조직하는 현실을 강조한다. 너스봄은 세계시민주의가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하지만 애국주의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보편적 이성을 현실적으로 법제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마미화, 2005: 47). 역시 애국주의 입장에 있는 벅(S. Bok)도 세계시민의식보다는 자기 자신에서 출발하는 세계 교육이 우선임을 주장한다(마미화, 2005: 48-4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세계 시민성은 생활 세계에 기반 한 자신의 일상에 충실하면서도 보다 보편적인 세계를 염두에 두고 일상에 대한 반성과

¹ 공동체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지향하므로 지역 시민성을 우선으로 한다. 즉, 공동체의 정체성과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² 특히 환경, 인권, 평화, 전쟁 등과 같은 쟁점에 있어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이다.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은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지식, 나의 행동은 지역에, 국가에,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나 자신의 행동이 지구 전체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나 자신이 외국인이나 외국 문화를 대하는 태도는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설규주, 2001: 169).

²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9)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민적 자질이 요구되고 이를 교육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발표한 바 있는데, 우선 세계인으로서 문제를 보고 접근하는 능력, 둘째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민감성, 셋째 지역사회,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정치적 참여 능력과 의지, 넷째 문화적 차이를 이해, 수용, 관용하는 능력, 다섯째 사회 속에서 개인의 역할에 대한 책임 의식과 협동하여 일하는 능력, 여섯째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일곱째 비판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환경을 보존하는 소비성향과 삶의 방식을 채택하려는 의지 등이다.

3) 민족 정체성 교육과 사회과

사회과는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능력을 길러주고, 그가 속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 목적에 비추 볼 때 사회과는 어느 교과보다도 시대적 요청과 사회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교과이다.

과거 사회과 교육에서는 대한 민국의 훌륭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주력하였다. 그렇다면 세계화 시대의 사회과 교육은 어떠한가를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 7 차 사회과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교육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인간상을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과는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개념과 원리, 사회 제도와 기능, 사회 문제와 가치, 그리고 연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선정, 조직하여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한다. 또한, 사회과에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현실에 대한 역사적인 시각에서의 이해 및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치·태도 등에 관한 요소를 중시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1)

즉, 사회과 교육의 목표는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과 교육을 받은 학생은 한국인임과 동시에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의도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세계 시민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남호엽, 2000: 23).

과거 사회과에서 민족 정체성 교육은 조국의 근대화에 기여하고 공산주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충성스러운 국민 양성을 목적으로 이루어 지기도 했고,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단일민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도 이루어졌다(한재은, 2008: 5). 이 시기의 정체성 교육은 혈연에 집착하면서 ‘나’와 ‘타자’의 구분을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의 사회과 교육은 경쟁의 논리만을 추구하는 배타적 성격의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을 고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민족이나 국가가 우리의 정체성 영역에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의 민족 정체성 교육의 모습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즉, 민족 정체성 교육은 한 가지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교육인 것이다.

하버마스(Habermas, J.)는 민족 정체성에 의해서 시민이 통합되는 과정과는 역으로 시민성에 의해서 민족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민족 정체성과 시민성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한상진 편, 1996 : 75-92). 그는 민족 정체성이란 종족적 자원이나 문화적 자산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일상 생활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즉, 시민이라는 개념이 민족 보다 우위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논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민족 정체성 교육은 민족 국가라는 틀 안에서 민주주의와 민족 정체성을 잘 융합하는 해결책으로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족 공동체의 원리를 보다 유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즉, 민족 정체성 교육은 영토적, 종족적 배타성을 뛰어 넘어 보다 탄력적인 것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민족 정체성 교육이 보다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의 영향력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폐쇄적 정체성에 기반한 민족보다는 다른 정체성의 단위와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탄력적인 민족 정체성은 바로 그 민족구성원의 시민적 자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즉, 현대와 같은 다원화 된 사회 속에서 다중의 정체성과 협력할 수 있는 민족 정체성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지혜롭고 사려 깊은 민주 시민의 양성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Ⅲ. 고등학교 사회과에서 민족 정체성 관련 분석대상과 분석준거

제 2장에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았다. 이 논의를 토대로 사회과 교과서의 민족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 분석대상은 제7차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관련부분 사회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과서의 내용이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아래의 <표 I>와 같다.

교과서는 교사들에게는 교수학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학생들에게는 학습자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일부 연구는 교과서와 관련된 활동이 학생들이 수업에 쓰는 시간 중에서 70-95%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회교과서의 내용과 구조 분석 및 교과서가 수업에서 학생과 교사에게 미치는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Wade, 1993: 232, 박영석, 2002: 34 재인용).

사회과는 교과 특성상 민족정체성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과이다. 교육과정 해설서에 의하면 사회과는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지식 습득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며, 민주사회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교과이다. 사회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민주시민은, ...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사회과에서는 …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 태도 등에 관한 요소를 중시한다(교육부, 1997 : 28-29).

즉, 사회과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를 함께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민족 정체성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사회과에서의 민족 정체성 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고등학교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아래 분석 준거에 의해 분석하고자 한다.

<표 I> 연구대상

연구 대상 교과서	연구 대상 관련 영역
<p style="text-align: center;">10학년 사회</p> <p>[㈜도서출판 디딤돌, ㈜두산,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지학사, ㈜천재교육, 대한교과서㈜, 법문사 총 8종]</p>	<p>IV. 환경문제와 지역문제 V.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VIII.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 IX.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p>
<p style="text-align: center;">고등학교 정치</p> <p>[㈜지학사, ㈜천재교육, 대한교과서㈜, 법문사 총 4종]</p>	<p>IV. 국제사회와 정치 V. 정치발전의 과제</p>
<p style="text-align: center;">고등학교 경제</p> <p>[㈜교학사, ㈜두산 (주) 천재교육, 대한교과서㈜, 법문사 총 5종]</p>	<p>I. 경제생활의 이해와 경제 문제의 해결 III.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V.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p>
<p style="text-align: center;">고등학교 사회문화</p> <p>[㈜교학사, (주)금성출판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지학사, ㈜천재교육, 대한교과서㈜, 법문사 총 8종]</p>	<p>III. 공동체 생활과 지역 사회 IV. 인간의 문화 현상의 이해 V. 현대사회와 사회 문제 VI. 미래사회의 전망과 대응</p>

2. 연구 절차

위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첫째, 문헌 연구로서 민족 기존 연구와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민족 정체성 교육의 개념과 내용 등에 대한 살펴본다. 특히 민족 정체성 교육에 대한 내용 변화를 시사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주목한다.

둘째,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민족 정체성 교육 내용 분석 준거를 설정한다.

셋째, 본격적인 분석 단계로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단원의 관련된 내용을 찾아 분석 준거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확인한다.

넷째, 민족 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서술 내용의 빈도와 분포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제7차 10학년 사회 교과서 8종, 정치 교과서 4종, 경제 교과서 5종, 사회문화 교과서 7종에 관련 내용을 분석한다.

다섯째, 각 교과별로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여섯째, 각 출판사별로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일곱째, 이를 토대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과 특징을 확인한다.

3. 연구의 분석 기준

1) 민족 정체성 관련 서술의 분석 준거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민족정체성 교육은 영속주의 시각, 근대주의 시각, 그리고 절충적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이 존재한다. 본 논문의 분석을 위해 단순화 하여 정리하면 <표II>와 같다. 정체성 교육은 ‘민족’이라는 개념의 성격이 그러하듯이 고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사실과 환경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 구성되는 것이다. 변화적 개념으로서 정체성은 동일시의 대상으로서 민족·민족주의의 의미는 역사적 환경과 조건에 따라 민족국가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그 내용도 달라야 하고, 그에 대한 인식도 다양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즉, 민족의 독자성과 영속성만을 추구하는 흐름과 민족에 대한 독자성과 영속성을 버리고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극단적인 흐름, 그리고 세계 시민성과 보편적 민족 정체성의 조화로운 추구로 진행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 교과는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치·태도를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인이자 세계인으로서의 의식을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기 이전 사회에서는 “상호의존”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닌 개념이 아니었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기대어 시·공간의 단축 현상을 경험하기 전까지 전세계는 자국의 영토 확장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세상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게 되고 환경, 인권, 전쟁, 마약 같은 국제 문제에 대한 세계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해서 대한민국만 안전하면

자신의 안위가 보장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민족정체성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영속주의적 민족정체성 교육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민족 국가의 발전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민족국가의 발전에 그 비중을 둔다면 국가의 생존을 중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국가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 정치 교육 영역에서는 국간 간의 경쟁을 강조³하는 국제 정치 현실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게 될 것이다.

경제 교육 영역에서는 세계화 논의에 영향을 받아 무한 경쟁이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관한 내용을 강조한다. 세계적 차원의 상호 의존의 현실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요청을 담고 있으면서 경쟁의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할 것이다.

사회문화 교육 영역에서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인종적 동질성의 강조 내지는 자국 문화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타국 문화 수용에 대한 수동적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반면 근대주의적 민족 정체성 교육은 이상주의적 세계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 중심이 된다. 즉, 민족 국가의 발전이나 생존을 위한

³ 현실주의 패러다임에서는 국익을 강조하는 국제정치 상황을 무정부 상태로 인식한다. 즉 국가들은 서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최우선적인 국가 목표인 생존(survival) 혹은 안보(survival)를 자기 스스로 돌보아야만 한다. 그 결과 안보경쟁, 무기경쟁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뒤따르게 된다. 결국 국가는 의도가 어디에 있든 국가간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상호관계가 어떻든 관계없이 국가들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박재영, 1998: 175).

노력에 대한 교육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민족'이나 '민족국가'는 세계정부로 가는 중간 단계에 해당하며 궁극적으로 인류의 이상은 초 국가적 세계정부의 실현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세계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 간에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내용도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에 대한 내용보다는 상호의존의 필요성과 상호의존을 통한 발전에 대한 전망이 많다.

정치 교육의 내용으로는 국제 질서를 상호의존적 체제로 인식하게 된다. 국가 간에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하게 되고 국가 이외에 다른 행위자들에 대한 역할에 인식도 강하게 드러날 것이다. 또한 국제적 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도 국가 간의 협력은 필수적 요소로 제시되게 된다.

경제 교육의 내용에서 보면 경제 분야는 그 특성상 상호의존적 성격이 강하다. 국가들은 국가간 무역, 투자, 그리고 화폐금융 면에서 상호의존적이다. 노동의 국제적 분화, 세계 경제의 유기적 연동성 등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사회문화 교육의 내용으로는 특히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인류 문화에 대한 다양성의 인정을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기르는 내용을 다루게 된다. 시민성 교육의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세계시민의식을 강조하고 그것을 기르는 태도를 중시할 것이다. 이런 교육 내용은 국가 간 상호의존 및 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행동양식을 기르게 할 것이다.

요약하면, 영속주의적 민족 정체성 교육에서는 국가 발전과 민족 번영을 위한 경쟁에 비중을 두게 되고, 근대주의적 민족 정체성 교육은 경쟁보다는 ‘상호의존’에 더 중점을 두어 세계시민으로서의 교육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다. 즉 서로 경쟁하는 환경보다는 서로 도와야 하는 상황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민족 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쟁’과 ‘상호의존’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이용하여 민족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Ⅱ> 민족정체성 교육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한 준거

	영속주의 시각의 민족정체성 교육	근대주의 시각의 민족정체성 교육	절충적 시각의 민족정체성 교육
전제	세계화 추세속에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	세계화 추세속에 민족주의, 민족국가 종언할 것이라는 논리	세계화로 인한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의 특권적 지위가 약화되지만 나름의 역할 수행한다는 논리
교육 목표	통합된 민족의 정체성 강조하며, 민족과 민족문화의 독자성 강조하는 경향 ↓ 민족국가의 발전을 추구하게 되어 <u>'경쟁'</u> 을 강조	'보다 넓은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문화적 다원주의 포용해야 한다는 자유지향적 시각으로 이상주의적 세계국가 지향 ↓ 국가 간 <u>'상호의존'</u> 또는 <u>'협력'</u> 을 강조	두 가지 방향을 조화시킨 민족 정체성 교육, 즉 유연한 민족정체성 교육

2) 민족 정체성 분석 준거로서 ‘경쟁’과 ‘상호의존’의 의미

정치학 대사전에 따르면 경쟁(competition)이란 같은 목적을 두고 서로 이기거나 앞서려고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이기심의 발로로서 받아들이고 있으며, 협조·협동(cooperation)을 이타심 또는 공동성의 발로로서 받아들이고 있다(아카데미리서치, 2002: 56). 즉, 경쟁이란 같은 목적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으로 국제정치에서 무정부 상태⁴를 의미한다. 국가들은 본질적으로 상대방보다 우월한 입장을 선호하게 되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이란 일반적으로 국가간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것은 정치, 안전보장, 문화, 경제 등 많은 분야에 성립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호의존은 무역, 금융 등 경제의 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한 교류가 진행되어 국가들 간에 상호의존이 증대하여 하나의 국가만으로는 그 국가의 경제적인 성장, 고용, 물가의 안정 등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의 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각국 또는 전체의 이익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호의존론의 중심적 과제가 된다(아카데미리서치, 2002: 767).

상호의존론은 경제적인 상호의존의 의미는 그것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국가에 이익을 준다는 전제에 있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대립 상황을 기본적

⁴ 현실주의의 핵심개념인 무정부상태란 국내정부와 같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담당할 중앙정부가 부재하고 힘의 위계질서만이 존재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즉 국가가 중요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간에도 서로 대치되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박재영, 1998: 177).

전제로 하는 국제 정치론과는 크게 다르다. 따라서 상호의존이 가져오는 이익과 상호의존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자율성의 상실이라는 이율배반이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3) '경쟁'과 '상호의존' 및 중립적 서술 관련 조건

이 분석은 문장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 지며 비슷한 성격의 문장이 반복되어도 빈도에는 포함시켰다. 한 문장에서 국가간의 경쟁과 상호의존의 내용을 동시에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는 중립 성격의 문장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분석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그 특성을 분류하게 될 기준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속적 민족 정체성의 특성을 갖는 기준으로 사용될 '경쟁'관련 어구와 근대주의 민족 정체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구의 기준을 '상호의존'으로 설정하였고, 그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장 내에서 국가간의 경쟁의 심화나 가속화를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교과목의 특성상 국가간의 경쟁의 가속화나 심화와 관련해서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목 별로 그 기준을 설정했다.

10학년 고등학교 사회 영역은 일반사회교과목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교과로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과서의 영역별 기준에 근거하여 국가간

경쟁의 의미를 적용할 것이다.

정치교과목에서는 국가간의 경쟁을 강조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과 실리를 강조하는 경우 그리고 국제 경쟁력의 제고를 강조하는 경우를 경쟁에 해당하는 서술로 분류했다.

-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다(법문사, 2008: 173).
- 국제 사회의 모습을 일컬어 ‘권력 투쟁의 장’ 또는 ‘무정부적 상태’라고도 한다(대한교과서, 2004: 183).

경제교과목의 경우에는 세계화가 처음 시작된 영역으로서 다른 교과에 비해 경쟁 관련 문장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과목에서는 무한 경쟁, 국제 경쟁력 강화, 국가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어구를 경쟁 관련 어구로 분류했다.

- 세계 경제는 무한 경쟁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두산, 2004: 21).
- 최근 ‘무역전쟁’,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까지 이야기되는 치열한 경쟁의 과정에서 대립과 마찰은 불가피한 현상처럼 보인다(천재교육, 2004: 20).
-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교학사, 2008: 199).

사회·문화교과는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는 태도의 육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기르는 교과이다. 이 교과의 성격상 경쟁이라는 어구를 직접적으로 찾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국가간 경쟁이란 어구 외에도 ‘민족문화의 발전’, ‘민족문화의 창조’, ‘민족문화의 소중화’, ‘민족문화의 독창성’을 중심으로 하는 자문화에 대한 긍지 및 정체성을 강조하는 서술 및 세계화로 인한 고유 문화의 훼손을 경계하는 문장도 경쟁 관련 어구로 분류했다.

- 탁월한 우리 민족의 정신과 고도의 기술 그리고 독창성을 반영하여 우리 민족 문화로 승화 발전시켰다(금성, 2008: 179).
- 통일은 우리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며, 아시아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추적 교량 역할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금성, 2008: 256).
- 앞으로 우리 민족 문화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염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교학사, 2007: 214).

다음으로 상호의존에 해당하는 서술 조건을 살펴보자. 먼저 정치 교과서의 경우에는 국가간의 상호의존성 또는 협력을 강조하는 문장 반드시 상호의존이라는 어구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라도 한 국가의 문제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의 문장도 상호의존 관련 어구로 분류되었다.

- 세계는 점점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고 있다(법문사, 2008: 192).

- 오늘날에는 경제,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지학사, 2004: 162).
- 지구촌 문제는 어느 한 국가나 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지학사, 2004: 162).
-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커짐에 따라 세계의 어느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행은 즉시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된다(천재교육, 2004: 219).

경제 교과서의 경우에는 하나의 세계시장의 성립에 관련한 내용과 국가간의 활발한 교류에 관련한 내용, 경제관계의 상호의존성의 증대에 관한 내용, 인류공동체의 발전에의 기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국가 간의 상호 결속은 강화되고, 어느 국가든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끊고서는 존립하지 못한다(대한교과서, 2008: 230).
- WTO(세계무역기구)체제는 무역 장벽의 완화와 국경을 초월한 국제 거래 및 기업 경영 등을 강조하면서 경제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단일화되면서 상호 협력과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두산, 2004: 220).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자국의 문화발전을 강조하는 경쟁관련 어구와 대비하여 타 문화의 존중과 인류의 공동체 의식과 공존을 강조하는 측면,

세계시민의식의 강조, 국수주의적 문화인식 태도의 경계, 상대주의적인 문화수용 자세와 문화적 공존의 강조를 상호의존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 환경과 자원의 문제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금성, 2008: 209).
- 세계 수준의 폭넓은 문화 교류가 확산되면서, 종전의 문화적 편견이 완화되고 인류 공동체 의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금성, 2008: 235).
- 최근에는 한 나라의 경쟁력이 문화 상품에 의해 좌우되고 청소년들의 문화적 창조력이 한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다(법문사, 2008: 163).
- 앞으로의 지구촌은 더욱 치열한 경쟁과 갈등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법문사, 2008: 229).
- 다른 문화들과의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래적인 문화 요소의 대량 유입으로 점차 우리 민족 문화의 정체성이 위협당하고 있다(교학사, 2008: 214).
- 외래 문화의 홍수 속에서도 민족 문화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교학사, 2008: 214).
- 우리는 지구는 하나이고, 세계도 하나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교학사, 2007: 271).

마지막으로 중립적인 서술로 분류한 예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오늘날의 국제 사회는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탈냉전,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무역기구체제와 경제 블록화에 따른 경쟁의 격화,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지구촌 공동체의 형성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지학사, 2004: 180).
-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가속화되고 블록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협력과 경쟁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교과서, 2008: 192).
-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문화적 세계화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천재교과서, 2008: 196).

지금까지 상술한 분석 조건을 요약하면 <표Ⅲ>과 같다.

<표Ⅲ> ‘경쟁’과 ‘상호의존’ 및 중립적 서술 관련 분석 조건 요약

기준 과목	경쟁	상호의존	중립
정치	“자국의 이익과 실리”, “국제 경쟁력의 제고”를 강조하는 문장	“국가간 상호의존성 및 협력”을 강조하는 문장과 상호의존의 의미 나타내는 문장	예) “경제의 블록화에 따른 경쟁의 격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지구촌 공동체의 형성...” (지학사, 2004: 180)
경제	“무한 경쟁”, “국제 경쟁력 강화”, “국가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문장	“단일 시장”, “국가간 활발한 교류”, “상호의존성의 증대”, “인류 공동체의 발전의 기여” 와 관련된 문장	예)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가속화되고 ..., 협력과 경쟁 양상이 복합적으로 ...”. (대한교과서, 2008: 192)
사회·문화	“민족문화의 발전”, “민족문화의 창조”, “민족문화의 소중화”, “민족문화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문장과 “세계화로 인한 고유 문화 훼손을 경계하는” 문장	“타문화의 존중”, “인류공동체의식과공존”, “세계시민의식” 을 강조하며 “상대주의적 문화수용자세”, “문화적 공존”을 강조하는 문장	예)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문화적 세계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천재교과서, 2008:196)

4.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교과서에 대한 내용 분석 방법(content analysis)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자료를 읽어가면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분석 준거로 제시한 단어나 내용이 등장하는 문장을 하나의 분석 단위로 분석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도표 및 그림, 탐구 활동은 그 분석 단위에서 제외하였다.

1) 분석 범주

분석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민족 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원별로 분석하였고 비슷한 성격을 지닌 단원의 교과간 일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과간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출판사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틀로 제시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의 반영도를 확인하였다.

2) 분석 항목

분석은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중점을 둔 항목은 분석기준에서 제시한 내용의 등장 횟수를 나타내는 빈도수로, 이를

기준으로 민족 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진단하였다.⁵ 다음으로는 빈도수와는 별도로 출판사별로 해당 영역의 등장 빈도수를 비교해 봄으로써 민족 정체성 교육의 학습 내용을 양적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교과간 민족 정체성 교육의 특성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문항의 빈도수와 서술경향을 분석해 보았다.

⁵ 본 연구의 객관도와 신뢰도의 유지를 위해 3회에 걸쳐 관련 항목의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다른 연구자에게 관련 항목의 검토를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IV. 민족 정체성 관련 내용 분석의 주요 결과 및 논의

이번 장에서는 분석 결과 전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우리 나라 고등학교 사회과의 민족정체성 교육의 내용과 각 교과별 민족정체성 교육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제7차 고등학교 사회과목의 민족정체성 교육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고등학교 사회과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 분석

제 3장의 분석 준거에 의해 고등학교 사회교과 전반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표IV참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고등학교 사회교과 전체 즉 10학년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교과서의 민족 정체성 관련 내용은 국가간의 상호의존적 속성을 나타내는 문장이 49.21%로 경쟁적 속성을 나타내는 문장이 40.12% 그리고 국가간의 관계를 경쟁적이면서도 상호의존적인 상황으로 나타낸 문장이 10.67%로 나타났다. 통계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 사회과의 민족 정체성 교육은 매우 이상적이다.

그러나 교과별로 그 성격을 분석하면 그 내용은 변화를 갖게 된다. 먼저 10학년 공통사회 영역의 경우에는 상호의존을 나타내는 문장이 49.30%로 경쟁을 나타내는 문장이 41.78%이다. 정치과목은 상호의존을 나타내는 문장이 74.32%, 경쟁을 나타내는 문장이 17.57%이며, 경제과목은 상호의존을 나타내는 문장이 36.36%, 경쟁을 나타내는 문장이 48.18%이다.

사회·문화과목은 상호의존을 나타내는 문장이 44.95%, 경쟁을 나타내는 문장이 44.04%이다.

10학년 사회과목과 사회·문화 과목은 비교적 상호의존과 경쟁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장이 비슷한 통계를 보이고 있으나, 정치과목에서는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 상호의존의 경향을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제 영역에서는 다른 10학년 사회과목이나 사회·문화 과목에 비해서 경쟁을 강조하는 문장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 같은 통계치의 의미를 좀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각 교과별로 분석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연구 대상 교과의 해당 단원의 성격을 분석하여 민족정체성 교육의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표IV> 고등학교 사회교과(10학년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과서)분석

교과	교과서	총문항	상호의존	경쟁	중립
사회 (8종)	㈜교학사	34	14	17	3
	㈜도서출판 디딤돌	30	18	9	3
	㈜중앙교육진흥 연구소	27	15	9	3
	㈜지학사	32	18	11	3
	법문사	27	11	15	1
	㈜두산	19	5	11	3
	㈜천재교육	26	10	14	2
	대한교과서㈜	18	14	3	1
	소계	213	105	89	19
백분위	100%	49.30%	41.78%	8.92%	
정치 (4종)	㈜지학사	26	20	5	1
	대한교과서㈜	12	9	1	2
	㈜천재교육	19	16	2	1
	법문사	17	10	5	2
	소계	74	55	13	6
백분위	100%	74.32%	17.57%	8.116%	
경제 (5종)	㈜두산	17	8	6	3
	대한교과서㈜	15	10	4	1
	법문사	23	10	9	4
	㈜교학사	16	3	12	1
	㈜천재교육	39	9	22	8
	소계	110	40	53	17
백분위	100%	36.36%	48.18%	15.45%	
사회문화 (7종)	㈜금성출판사	25	14	8	3
	대한교과서㈜	4	0	2	2
	㈜중앙교육진흥 연구소	14	8	3	3
	㈜지학사	23	10	13	0
	㈜천재교육	15	7	5	3
	법문사	21	7	14	0
	㈜교학사	7	3	3	1
	소계	109	49	48	12
백분위	100%	44.95%	44.04%	11.01%	
총계		506	249	203	54
백분위		100%	49.21%	40.12%	10.67%

2. 각 교과별 민족정체성 교육의 내용 분석

1) 10학년 사회교과서 분석 내용

10학년 사회교과서에서는 상호의존의 경향을 나타내는 문장이 49.30% 경쟁의 성격을 띠는 문장이 41.78%, 중립적 성격을 드러내는 문장이 8.92%로 나타났다.

먼저 교과서 별로 그 수치를 살펴보면 경쟁의 수치가 높은 교과서가 4종[(주)교학사, (주)두산, 법문사, (주)천재교육]이고 상호의존의 수치가 높은 교과서가 4종[(주)도서출판디딤돌,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지학사, 대한교과서(주)]으로 출판사별로 그 성향이 상이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분석 대상 문장도 교과서 별로 보면 경쟁과 상호의존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는 교과서도 있지만 그 간격이 매우 크게 나타내는 교과서도 있다(표V 참조).

다음으로 민족 정체성 교육의 성격이 교육하는 단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문장이 나타나는 단원을 살펴보았다(표VI 참조). 10학년 사회교과의 분석 해당 제4단원 환경 문제와 지역문제, 제5단원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제8단원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 제9단원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제10단원 사회 변동과 미래 사회 등이다.

제4단원의 환경 문제와 지역 문제 단원을 보자. 이 단원은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 확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간 환경 문제와 지구적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생활 기반 시설의 입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지역 갈등 및 지역 분쟁,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구성된 단원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31). 이 영역에서는 상호의존의 경향이 뚜렷했다. 해당 진술의 건수는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진술이 상호의존적 경향을 나타냈다. 해당 문장이 총 24개의 모든 문장(68.42%)이 상호의존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그 원인과 대책이 한 국가만의 노력과 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국가간 상호의존과 협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 한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가 인접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예는 흔히 있다(디딤돌, 2004: 120).
- 인류가 잘 살 수 있는 ‘하나뿐인 지구’라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지구촌은 환경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제 협약을 체결하고 실천을 추진하고 있다(두산, 2004: 124).
- 지구 온난화 현상이나 오존층 파괴와 같은 환경 문제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과제로서,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디딤돌, 2004: 122).

제5단원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단원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경제, 문화의 지역 간, 국가 간 교류가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의해 확대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세계화를 국제 간의 상호 협력 및 교류와 관련 지어 설명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는

단원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33-34). 특히 세계화의 현상을 소개하는 단원으로서 국가간 지역간의 상호의존적인 상황에 대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상호의존의 성향을 나타내는 문장이 61.54%이고 경쟁의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이 30.77%로 국가 간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의 장벽은 점차 의미가 없어지고, 국가 간에 노동, 자본, 재화가 자유로이 이동하고 있다(지학사, 2004: 161).
-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은 이동에 따르는 위험을 줄여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며, 그에 따라 지역과 지역 사이의 상호 의존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고 있다(디딤돌, 2004: 158).

제8단원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 단원은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경향이 아니라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선회한다. 이 단원에서는 경제의 세계화 과정에서 확대되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 교류를 협력과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게 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40-43). 특히, 대부분의 교과서에 국제 경쟁력의 강화의 중요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 실제 학생들이 수업에서 느끼는 수치는 통계상의 수치보다 더 경쟁적인 상황에 가깝게 다가갈 것이다. 대상 문장 41개 중 28개 문장 68.29%가 경쟁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었다. 제5단원에 세계화 현상을 설명하면서는 국가간의 상호의존적 상황을 강조하고, 제8단원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 먼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두산, 2008: 223).
-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혁신을 게을리 하거나 비효율적인 기업들은 가차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교학사, 2008: 237).

제9단원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단원에서는 다른 단원에 비해서 중립적인 서술의 증가가 많고, 상호의존을 중시하면서도 경쟁의 측면도 나타나 있다. 공동체 생활의 여러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호의존적 경향의 서술이 대부분이며, 문화 변동과 민족문화의 발전과 관련해서도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면서 상호의존적 상황에 대한 문장이 많았다.

- 오늘날 우리는 지역,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지학사, 2004: 270).

제10단원 사회변동과 미래사회 단원에서는 연구주제 관련 문장이 72개로 비교적 많은 진술을 보인 단원이다. 이 단원은 제8단원과 마찬가지로 경쟁의 측면이 부각된다.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단원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더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대변혁의 시대와 관련해서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한 상호의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많이 나타나지만, 한국의 미래와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중
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국가 생존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영역에
걸쳐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보화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상호의존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지학사, 2004: 297).
- 국가 간의 협력과 연계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교학사, 2008: 290).
- 세계화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 남아 대변혁을 이끌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교학사, 2008:291).
- 우리의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지향적
전략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천재교육, 2008: 299).

결론적으로 사회교과서의 단원 별 분석 결과를 통해 해당 단원의 성격에
따라 우리 교과서에서 나타내는 경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경제적인
행위의 합리적 선택과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쟁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환경문제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상호의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교과서 전체적으로는 상호의존적 문항의 수가 많다고 하지만, 단원의 성격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 고등학교 10학년 사회교과서 출판사별 분석

출판사	분석내용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주)교학사	14	17	3	34
(주)도서출판디딤돌	18	9	3	30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15	9	3	27
(주)지학사	18	11	3	32
법문사	11	15	1	27
(주)두산	5	11	3	19
(주)천재교육	10	14	2	26
대한교과서(주)	14	3	1	14
소계	105	89	19	213
백분위	49.0%	41.8%	8.2%	100%

<표VI> 고등학교 10학년 사회교과서 영역별 분석

대단원	출판사	분석내용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4. 환경 문제와 지역 문제	㈜교학사	6	0	0	0
	㈜도서출판 디딤돌	3	0	0	3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	0	0	2
	㈜지학사	3	0	0	0
	법문사	3	0	0	10
	㈜두산	2	0	0	2
	㈜천재교육	2	0	0	2
	대한교과서㈜	3	0	0	0
	소계	24	6	0	19
	백분위	100.00%	0.00%	0.00%	100.00%
5.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출판사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교학사	2	2	0	4
	㈜도서출판 디딤돌	8	0	1	9
	㈜중앙교육진흥연구소	7	2	0	9
	㈜지학사	3	0	0	3
	법문사	1	6	0	7
	㈜두산	1	1	0	2
	㈜천재교육	0	1	2	3
	대한교과서㈜	2	0	0	1
	소계	24	12	3	39
백분위	61.54%	30.77%	7.69%	100.00%	
8.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	출판사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교학사	1	4	0	5
	㈜도서출판 디딤돌	2	3	0	5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	1	0	3
	㈜지학사	1	6	1	8
	법문사	0	2	0	2

	㈜두산	0	6	2	8
	㈜천재교육	3	5	0	8
	대한교과서㈜	1	1	0	2
	소계	10	28	3	41
	백분위	24.39%	68.29%	7.32%	100.00%
9.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출판사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교학사	2	1	1	4
	㈜도서출판 디딤돌	2	1	1	4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	1	2	4
	㈜지학사	3	0	2	5
	법문사	6	6	1	13
	㈜두산	1	0	0	1
	㈜천재교육	3	0	0	3
	대한교과서㈜	1	1	1	3
	소계	19	10	8	37
	백분위	51.35%	27.03%	21.62%	100.00%
10. 사회 변동과 미래 사회	출판사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교학사	3	10	2	15
	㈜도서출판 디딤돌	3	5	1	9
	㈜중앙교육진흥연구소	3	5	1	9
	㈜지학사	8	5	0	13
	법문사	1	1	0	2
	㈜두산	1	4	1	6
	㈜천재교육	2	8	0	10
	대한교과서㈜	7	1	0	8
	소계	28	39	5	72
백분위	38.89%	54.17%	6.94%	100.00%	
총계					182

2)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분석 내용

정치 교과서의 경우 분석 해당 단원은 제4단원 국제사회와 정치와 제5단원 정치발전의 과제이다. 이 두 단원 모두 경쟁보다는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4단원의 경우 상호의존에 관련된 진술은 72.41%, 경쟁에 관련된 진술은 18.97%이며, 제5단원의 경우는 상호의존 관련 진술은 81.25%, 경쟁에 관련된 진술은 12.50%로 상호의존적 진술의 경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표Ⅶ 참조).

정치 교과서 분석에서 드러난 결과 중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은 타 교과에 비해 국가간 상호의존에 대한 수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출판사에 따라 숫자의 차이가 있지만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두드러진다(표Ⅷ 참조).

제4단원의 국제사회와 정치 단원은 국제 사회의 발달 과정과 국제사회의 특징을 학습하는 단원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2001)의 이 단원 개관에 의하면 이 단원을 학습한 학생들은 국제사회가 국내사회와는 달리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교과서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경쟁 관계도 언급한 교과서가 있지만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문장에 비해 그 숫자가 매우 적다. 상호의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서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갈등이 빚어짐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성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지학사,

2004: 162).

- 무엇보다도 지역, 민족, 인종 등의 특수한 이익을 앞세우기 보다는 전 인류의 이익과 번영을 고려하는 세계 시민의 자세가 필요하다(지학사, 2004: 192).
-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은 더욱 심화되어 국제 사회는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천재교육, 2004: 190).

제5단원의 정치발전의 과제에서는 특히, 현대민주사회에서의 과제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한 국가의 문제가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주사회의 과제도 상호의존적인 환경 하에서 인식하게 되고 그런 인식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게 된다. 상호의존적 인식의 대표적인 서술은 다음과 같다.

-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면서 인류가 당면하는 문제도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협력하여 대처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가 되었다(법문사, 2004: 225).
- 현대 사회의 시민들에게는 지구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연대감을 가지고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천재, 2004: 245).

결론적으로 정치 교과서에서는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 현대민주사회의 과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상호의존적 인식과 태도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제 정치나 국제 사회가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것만큼 상호의존적이고 그들간의 관계가 평화적인 협력만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홀스티(Ole R. Holsti)가 제시한 상호의존론의 단점은 그 의미를 지닌다(박재영, 1998: 373-374). 그는 상호의존론이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의 지속성(durability)에 대한 잠재력을 과소평가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족국가는 다른 행위자들로부터의 도전을 이겨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겨낼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는 여전히 국제 사회의 주요 행위자이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으며, 여전히 국민의 충성심을 요구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힘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Hollis and Smith, 1990: 35, 박재영, 1998: 373-374).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무정부성과 안보 딜레마를 간과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교과서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낭만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앞으로 현실의 세계에서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하는 것은 교육의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갈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과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야 하는 것도 또한 교육의 의무일 것이다.

<표Ⅶ>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단위 별 분석

단원	출판사	분석 내용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4. 국제사회와 정치	대한교과서(주)	7	1	2	10
	법문사	8	5	2	15
	(주)지학사	15	4	1	20
	(주)천재교육	12	1	0	13
	소계	42	11	5	58
	백분위	72 41%	19 97%	8 62%	100%
5. 정치발전의 과제	출판사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대한교과서(주)	2	0	0	2
	법문사	2	0	0	2
	(주)지학사	5	1	0	6
	(주)천재교육	4	1	1	6
	소계	13	2	1	16
	백분위	81 25%	12 50%	6 25%	100%
총계					74

<표 VIII>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출판사 별 분석

출판사	분석내용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대한교과서(주)	9	1	2	12
법문사	10	5	2	17
(주)지학사	20	5	1	26
(주)천재교육	16	2	1	19
소계	55	13	6	74
백분위	74 32%	17 57%	8 11%	1 00%

3)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분석 내용

경제 교과서의 경우 분석 해당 단원은 제1단원 경제생활의 이해와 경제 문제의 해결, 제3단원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제5단원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다. 제1단원에서는 경제생활의 상호의존적 속성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면서 상호의존적 성향의 문장이 대상문장 16개 중 12개에 해당되어 75%로 나타났다. 제3단원에서는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관한 단원으로 경제의 학문적 속성상 합리적 선택이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경쟁을 강조하는 경향은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문장의 수가 너무 적어 분석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 제5단원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에 대한 단원으로 상호의존과 경쟁에 해당하는 문항이 30.77%: 51.65%로 경쟁의 내용을 갖는 문장이 더 많았다(표IX 참조).

특히 제5단원의 경우 10학년의 (8)국민경제의 합리적 선택 단원 중 세계 시장의 경제 경쟁과 협력이란 주제와 연계되어 있다. 10학년의 (8)국민경제의 합리적 선택 단원의 분석에서도 상호의존과 경쟁의 내용 비율은 23.39%: 69.29%로 경쟁의 내용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이 단원과는 같은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대부분 출판사의 교과서들이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한 제시가 비교적 상세하게 이루어져 있어 대상 문장의 빈도 수보다 더 강하게 경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수출 중심의 우리의 경제 구조와 세계화와 무한 경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는 국제 경쟁력의 향상이다(천재교육, 2007: 247).

- 세계적인 무한 경쟁 체제 하에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법문사, 2004: 215).

즉, 경제 교과서에서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측면의 내용이 많다. 하지만 경제 교과서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호의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법문사, 2004: 247).

<표IX>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단원 별 분석

대단원	출판사	분석내용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1. 경제생활의 이해와 경제 문제의 해결	대한교과서(주)	0	0	0	0
	(주)두산	6	1	0	7
	법문사	2	0	0	2
	(주)교학사	1	0	0	1
	(주)천재교육	3	2	1	6
	소계	12	3	1	16
	백분위	75.00%	18.75%	6.25%	100.00%
3.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출판사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대한교과서(주)	0	0	0	0
	(주)두산	0	3	0	3
	법문사	0	0	0	0
	(주)교학사	0	0	0	0
	(주)천재교육	0	0	0	0
	소계	0	3	0	3
백분위	0.00%	100.00%	0.00%	100.00%	
5.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출판사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대한교과서(주)	10	4	1	15
	(주)두산	2	2	3	7
	법문사	8	9	4	21
	(주)교학사	2	12	1	15
	(주)천재교육	6	20	7	33
	소계	28	47	16	91
백분위	30.77%	51.69%	17.54%	100.00%	
총계					110

<표 X>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출판사 별 분석

출판사	분석내용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대한교과서(주)	10	4	1	15
(주)두산	8	6	3	17
법문사	10	9	4	23
(주)교학사	3	12	1	16
(주)천재교육	9	22	8	39
소계	40	53	17	110
백분위	36. 6%	48. 8%	15. 5%	100. 0%

4)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분석 내용

교육과정 해설서(2001)에 의하면 사회문화 교과서의 목표 속에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사회·문화 현상 안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탐색하고, 민족 문화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여 민주 복지 사회 건설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고, 이와 함께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로 나아가는 미래 사회를 전망해 보고, 미래 사회에 나타날 여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영속적 민족 정체성과 근대주의적 민족 정체성 교육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문화 교과서의 경우 연구 분석 해당 단원은 제3단원 공동체 생활과 지역사회, 제4단원 인간의 문화 현상의 이해, 제5단원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제6단원 미래사회의 전망과 대응 단원이다. 해당 문장 109개 중 49(44.95%)개 문장이 상호의존의 내용을 48(44.04%)개 문장이 경쟁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표 XI 참조).

제3단원은 해당 문장의 숫자가 적어 전체 통계에는 포함시켰지만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의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제4단원은 인간 문화 현상의 이해에 대한 단원으로 문화 변동과 민족 문화의 발전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어 이 부분에서 주로 경쟁적인 내용 나타나고 있다. 법문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문화 영역도 경쟁력의 한 분야로 규정하며 문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즉, 이제는 문화 영역도 우리의 정신 세계에 대한

영역을 넘어 산업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해당 문장 40개 중 25개 62.50%의 문장에서 경쟁관련 내용이 나오고, 8개 문장 20.00%에서 상호의존 관련 내용이 나타났다. 그러나 출판사마다 성향의 차이가 크고 해당 문장의 빈도에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 외래 문화의 홍수 속에서도 민족 문화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교학사, 2007: 215).
- 개방화, 세계화 추세 속에서 문화적으로도 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이 시기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른다면, 지역 문화는 민족 문화 발전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 그 보존 및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법문사, 2008: 165).

제5단원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에서는 현대 사회 문제와 대책과 관련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교과서가 상호의존적인 내용이다. 상호의존적 내용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문장이 문제의 성격이 상호의존적이며 그 해결도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가간 협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항은 제시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 문장 12개 모두 교과서 별로 문항의 차이는 있으나 성격은 모두 상호의존적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 환경문제, 인권문제, 평등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한 사회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섰다(교학사, 2008: 271).

- 환경과 자원 문제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금성, 2008: 209).

제6단원 미래 사회의 전망과 대응은 미래사회의 발전과 변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는 단원이다. 55개 문장 중 28개 문장 50.91%가 상호의존의 내용을 23개 문장 41.82%가 경쟁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 교과서에서의 제5단원인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에서는 상호의존 30.77%와 경쟁이 51.65%로 경쟁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았으나, 사회문화 교과서의 미래 전망 단원에서는 상호의존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타났다. 두 단원 모두 교과목을 다르지만 미래 전망이라는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교과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교과서가 비슷한 단원에서도 일관성 있는 태도로 교육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구촌 정보 시대를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각종의 문화적, 인종적 편견을 제거해야 하고,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과 발전에 책임감을 갖는 세계 시민 의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금성, 2007: 238).
-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고 생활 공간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인식해야

한다(법문사, 2008: 229).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는 상호존중과 경쟁관련 내용이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의 단원별로 즉, 해당 사항에 따라서 교과서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또한 출판사마다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알 수 있다(표 XIII 참조).

<표 X>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단위 별 분석

대단원	출판사	분석내용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3.공동체생활과 지역 사회	(주)금성출판사	0	0	0	0
	대한교과서(주)	0	0	0	0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0	0	0	0
	(주)지학사	0	0	0	0
	(주)천재교육	1	0	0	1
	법문사	0	0	0	0
	(주)교학사	0	1	0	1
	소계	1	1	0	2
	백분위	50.00%	50.00%	0.00%	100.00%
4. 인간의 문화 현상의 이해	출판사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주)금성출판사	5	5	0	10
	대한교과서(주)	0	1	1	2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	0	3	5
	(주)지학사	0	0	0	0
	(주)천재교육	0	0	1	1
	법문사	1	9	0	10
	(주)교학사	0	12	0	12
	소계	8	27	5	40
	백분위	20.00%	67.50%	12.50%	100.00%
5.현대사회와 사회문제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주)금성출판사	1	0	0	1
	대한교과서(주)	0	0	0	0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	0	0	2

	(주)지학사	0	0	0	0
	(주)천재교육	4	0	0	4
	법문사	0	0	0	0
	(주)교학사	5	0	0	5
	소계	12	0	0	12
	백분위	100.00%	0.00%	0.00%	100.00%
6. 미래사회의 전망과 대응	출판사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주)금성출판사	8	6	0	14
	대한교과서(주)	0	1	1	2
	(주)중앙교육 진흥연구소	4	3	0	7
	(주)지학사	3	3	1	7
	(주)천재교육	2	5	2	9
	법문사	6	5	0	11
	(주)교학사	5	0	0	5
	소계	28	22	3	55
	백분위	51.01%	41.32%	7.27%	100.00%
총계					109

<표 XII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출판사별 분석

출판사	분석내용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주)금성출판사	14	11	0	25
대한교과서(주)	0	2	2	4
(주)중앙교육 진흥연구소	8	3	3	14
(주)지학사	10	13	0	23
(주)천재교육	7	5	3	15
법문사	7	14	0	21
(주)교학사	3	3	1	7
소계	49	51	9	109
백분위	44.5%	46.9%	8.16%	100.00%

V. 결론 및 시사점

1. 분석 결과의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사회교과 전체 즉 10학년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교과서의 민족 정체성 관련 내용은 국가 간의 상호의존적 속성을 나타내는 문장이 전체 문장 506개 중 249개 49.21%에 해당하고, 경쟁적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 203개 40.12%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간의 관계를 경쟁적이면서도 상호의존적인 상황으로 나타낸 문장이 10.67%로 나타났다. 적어도 통계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 사회과의 민족 정체성 교육은 영속적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과 근대주의적 민족 정체성 교육 어느 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편향된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다.

둘째, 고등학교 사회교과 각 교과별로 그 내용을 분석하면 그 내용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10학년 사회과목과 사회·문화 과목은 비교적 상호의존과 경쟁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장이 비슷한 통계 숫자를 보이고 있으나, 정치와 경제과목은 지향하는 바를 달리하고 있다. 정치 과목에서는 국가간의 관계 및 기타 문제에 있어 상호의존의 경향을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는 반면, 경제 영역에서는 다른 10학년 사회 과목이나 사회·문화 과목에 비해서 국가 경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에 우리 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내용이 많아 경쟁의 경향이 나타났다. 즉 교과

과목별로 민족 정체성 교육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각 교과서의 단원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10학년 사회 교과서의 분석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상호의존적 내용이 많지만, 단원에 따라 내용이 달랐다. 경제 행위의 합리적 선택과 미래 사회 대비 단원에서는 '경쟁'을 강조한 반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상호의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교과서의 단원 별 분석 결과를 통해 해당 단원의 성격에 따라 강조하는 내용의 태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둘째, 정치 교과서의 경우 분석 해당 단원은 제4단원 국제사회와 정치 및 제5단원 정치발전의 과제이며, 이 두 단원 모두 경쟁보다는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4단원의 경우 상호의존에 관련된 진술은 72.41%, 경쟁에 관련된 진술은 18.97%이며, 제5단원의 경우는 상호의존 관련 진술은 81.25%, 경쟁에 관련된 진술은 12.50%로 상호의존적 진술의 경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났다. 정치 교과서 분석에서 드러난 결과 중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은 타 교과에 비해 상호의존에 대한 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출판사에 따라 숫자의 차이가 있지만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따라서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는 다른 교과목들에 비해 근대적 민족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교과에

국제환경을 인식하는 태도가 이상주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경우 분석 해당 단원은 제1단원 경제생활의 이해와 경제 문제의 해결 단원에서는 경제생활의 상호의존적 속성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면서 상호의존적 성향의 문장이 대상문장 16개 중 12개에 해당되어 75%로 였으며, 반면에 특히 제5단원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에서는 경쟁을 나타내는 문장이 51.65%로 상호의존을 나타내는 문장이 30.77% 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 교과서에서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측면의 내용이 많았다.

넷째,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의 경우 대상 문장 109개 중 49(44.95%)개 문장이 상호의존의 내용을, 48(44.04%)개 문장이 경쟁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제4단원은 인간 문화 현상의 이해에 대한 단원으로 문화 변동과 민족 문화의 발전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어 이 부분에서 주로 경쟁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나, 제5단원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에서는 현대 사회 문제와 대책과 관련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교과서가 문제의 발생과 해결에 관해서 상호의존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상호 의존의 양상을 보면 국가 간 긴밀한 협조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의 활동 내지는 문제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국간 간 상호 협조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내용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지에 대한 대책의 제시는 부족하다.

제6단원 미래 사회의 전망과 대응은 미래 사회의 발전과 변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는 단원으로 상호의존과 경쟁관련 내용의 비율이 50.91%:41.82% 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사회문화 교과에서는 상호의존과 경쟁관련 내용이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의 단원 별로 즉 해당 사항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2. 시사점 및 제언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과 민족 정체성 교육은 영속주의 시각의 정체성 교육과 근대주의 시각의 정체성 교육이 골고루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민족 정체성 교육의 다른 면을 발견 할 수 있다. 민족 정체성 교육은 과목마다 그 성향을 달리 하고 있으며, 특히 주제나 이슈에 따라서 상반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치 영역의 경우 국제사회의 현실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인식하면서 상호의존적 측면만 강조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탈냉전 이후 협력적 국제질서의 확대에만 주목하여 갈등이나 그 이면의 문제에 대한 제시가 부족한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비판적인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 대한 냉철한 인식 없이는 진정한 ‘상호의존적’ 관계는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특히, 제4단원 국제사회와 정치 단원은 국제 사회의 특징에 대한 학습내용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의 교육 내용의 보완이 요청되고 된다. 또한 정치 교육에서 현실 정치 인식에 중요한 요소인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교육 내용이 적다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경제 영역에서는 세계화·정보화의 영향으로 경제 환경이나 경제질서 측면에서는 ‘상호의존적’ 내용이 많다. 그러나 생존의 문제와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분야에서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국가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 국제 사회 질서를 설명할 때는 상호의존적 상황과 비교적 협력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정치 발전 분야에서도 국제사회는 협력과 지구촌화 된 시대의 특징을 논의하면서, 지구촌 구성원으로서 인류의 당면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협력적인 세계 구성원으로서의 자세는 경제 영역에서는 경제적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고 치열한 경쟁 상태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경쟁력을 높이는 민족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세로 변화한다. 세계화의 측면을 자국 경제의 효율성 향상에 강조점을 두어 접근하여 효율성 향상을 통한 전 세계적 부의 증진 측면에 대한 인식은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출판사 별로 대한교과서, 두산, 법문사는 상호의존적 내용이 많았고, 교학사, 천재교육은 경쟁 관련 내용이 많아 정체성 교육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사회 문제 부분 특히,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과서나 영역에 관계 없이 국제적인 협력과 상호의존의 필요성이 많이 등장한다. 환경이나 인권 등 국제적 문제는 국가간 상호의존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의 보다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의 노력보다는 국제정치의 유효한 행위자인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여 상호협력의 필요성만이 강조되고 어떤 방식으로 그런 목표를 달성할 지에 대한 방법의 제시가 미흡하다.

문화 영역의 경우에는 상대주의적인 문화 수용 자세와 문화적 공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민족 문화의 발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강조하고 있어 경쟁적 내용도 많았다. 미래 사회의 전망과 대응에서는 상호의존적 내용이 약간 우세하지만 경쟁적 전망과 혼재되어 있다. 즉 환경 문제와 같이 현재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의존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국의 현실적 이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적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과서는 교과마다 내용과 특성이 다른 민족 정체성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교과는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영속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고, 경제 교과에서는 '경쟁'을 강조하는 근대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문화 교과는 정치 교과와 경제 교과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과에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또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사회과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인으로서의 가치·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민족 정체성 교육과 세계 시민성 교육을 시행할 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러한 태도는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사회과는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시민성 교육의 핵심을 담당하는 교과이다. 학생들에게 적합한 정체성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 정체성 교육은 사회과 교과 간 내용의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지향적 민족정체성 교육은 세계화 교육을 통해서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가치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민족국가적 가치를 외면하지 않는 그런 교육이어야 한다. 이는 과거 지나치게 인종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을 띄고 있었던 민족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는 탄력적인 민족 정체성 교육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먼저, 민족정체성 교육 변화는 민족 정체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변화된 시대에 적합한 민족정체성 교육의 의미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될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민족 정체성 교육에 대한 교육적 합의를

마련한 후 그 기반 위에서 사회과 각 교과간 교육 내용의 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교과의 특성상 교육 내용의 방향이 상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과 전체적으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을 정한 후 세부적인 부분에서 논의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현재처럼 정체성 교육에 대한 기준 없이 각 교과나 교과서에 따라 정체성 교육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과 형식의 민족정체성 교육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 논의와 이에 근거한 교육 내용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 시민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족 정체성 교육이 사회과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꼭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서 오는 현실성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1997), 『사회과 교육과정』,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2001),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부(200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 강동연(2000),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사회과 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 석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고미숙(2003), “정체성 교육의 새로운 접근: 서사적 정체성 교육”, 『한국교육』, Vol. 30, No. 1, pp. 5-32.
- 권용혁(2001), “열린공동체주의를 향하여”, 『철학연구』 제55집, pp. 225-243.
- 권세정(2006), “세계화시대 한국민족주의의 역할”, 부산대학교 대학원 정치학석사 학위논문.
- 김미숙(2002), “남북한 교과서에서 나타난 민족정체성”, 『교육사회학 연구』, 제12권 제1호, pp. 43-65.
- 김왕근(1999), “세계화와 다중 시민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28집, pp. 45-68.
- 김왕근(2000), “시민의 정치 의식과 시민 교육의 원리”, 『민주시민교육논총』, Vol. 5, No. 1,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pp. 31-53.
- 김태섭(2005), “세계화 시대의 국제 이해교육 활성화 방안”,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준(2003), “세계화 시대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 김남국(2005), “다문화 시대의 시민 :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Vol. 45 No. 4, 한국정치학회, pp. 97-121.

- 김의휘(2005),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망에 대한 비교연구-켈너와 스미스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호엽(2001), "한국 사회과에서의 민족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학위논문.
- 노찬옥(2001),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시안적 연구-세계 시민의 위상과 세계 시민교육의 방향 탐색", 『시민교육연구』, 제33집, pp. 89-108.
- 노찬옥(2003),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세계 시민성과 시민 교육적 함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 노찬옥(2004), "다원주의 시대의 세계시민 교육", 『사회과 교육』, 제43권 4호, pp. 207-224.
- 마미화(2005),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화'에 대한 관점 및 서술 내용의 분석연구: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 박아청(1984),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정민사.
- 박아청(1990), 『아이덴티티의 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 박아청(1996), 『청년과 아이덴티티』, 서울: 배영사.
- 박재영(1998), 『국제정치 패러다임』, 서울: 법문사.
- 서태열(2004), "세계화, 국가정체성 그리고 지역정체성과 사회과교육", 『사회과교육』 제43권 4호, pp.5-29.
- 신희수(2007),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사회과 수업모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설규주(1999),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시민교육",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설규주(2001), “탈국가적 시민성의 대두와 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 □ 세계시민성과 지역시민성의 조화로운 함양을 위한 후천적 보편주의 시민교육”, 『시민교육연구』 제32집, pp. 151-178.
- 심정보(1995), 『전환시대의 교육사상』,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아카데미리서치(2002), 정치학대사전(상), 서울: 아카데미리서치.
- 양영자(2007), “분단-다문화시대 교육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가능성 모색”, 『교육과정연구』, Vol. 25, No, 3, pp. 23-48.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9), 『학교에서의 국제이해교육』,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이기범(1997), “공동체주의철학과 세계화 지방화시대 한국교육의 윤리적 과제”, 『민족학연구』, Vol. 2, 한국민족학회, pp. 135-165.
- 이기복·장미정(2002), “사회과 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한 실천 방안 탐색”,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순형(1991), “민족정체감의 개념화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제7호 겨울, 한국청소년개발원, pp. 139-152.
- 이승중(1997), “지방화·세계화 시대의 시민의식”, 『사회과교육』 제24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pp. 49-63.
- 이지명(2000), “지구화 추세속의 민족정체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호영(2001), “민족 정체성 형성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미정(2002), “민족정체성 교육에 관한 연구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숙자·이인표(1999), "국제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사회과교육학연구』, 제3호, pp. 22-52.
- 진덕규(2007), "세계화와 민족주의를 생각하면서", 『담론21』, Vol. 10, No. 3, pp. 5-17.
- 최석환(2004), "세계화 시대의 민족정체성 교육의 방향-다문화적 어프로치와 관련하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용규(1992), "한국 사회과에서의 민족의식 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용규(1994), "국제화 시대의 민족의식교육", 『사회과교육』 1994. 8. 통권 제27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pp. 47-55.
- 한재은(2008), "다문화시대의 민족주의와 사회과 교육",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홍윤기(2001), "지구화 조건 안에서 본 문화 정체성과 주체성", 『사회와 철학』 Vol- No 1, 사회와 철학 연구회, pp. 33-77.
- 홍은화(1995), "한국인의 정체성 연구-민족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홍남기(2005), "세계화에 관한 비판적 담론을 수용한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진 편(1996),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하버마스 한국방문7강의』, 서울: 나남.
- A.D.Smith(1980),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임지현 역, 서울: 한겨레.
- Anderson, Benedict(1996), *Imagined Community: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윤희숙 역, 서울: 사회비평사.

- E.J Hobsbaum(1994), 『1780년대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 비평사.
- Fukuyama, F. (1995), 『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점에 선 최후의 인간』, 이상훈 역, 서울: 한마음사.
- Giddens. A(1995), 『민족국가와 폭력』, 진덕규 역, 서울: 삼지원.
- Giddens. A(1998), 『제3의 길』, 한상진·박찬욱 역, 서울: 생각의 나무.
- John Chapman, M. Eugene Gilliom, James M. Becker, Jan Tucker(1994), "Position Statement on Global education", *Social Studies in a Global Society*, N.Y: Delmar Publisher.
- Peter F. Kruker(1993),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이재규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Lind, Michael(1994), "In defense of Liberal Nationalism", *Foreign Affairs*, Vol. 73, No 3.
- Luper-Foy, Steven(ed)(1988), *Problem of International Justice*, Colorado: Westview Press.
- Reich, Robert B(1995), 『국가의 일』, 남경우 역, 서울: 까치.
- Wade, Rahima C(1993), "Contents Analysis of Social Studies Textbooks: A Review of Ten Years of Research".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Vol. 21, No. 3, pp. 232-256.

<교과서>

- 오경섭 외(2004), 『고등학교 사회』, (주)도서출판 디딤돌.
- 손봉호 외(2004), 『고등학교 사회』, (주)두산.
- 김주환 외(2004), 『고등학교 사회』,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황만익 외(2004), 『고등학교 사회』, (주)지학사.

박종희 외(2008), 『고등학교 사회』, (주)천재교육.
최병모 외(2004), 『고등학교 사회』, 대한교과서(주).
김재한 외(2004), 『고등학교 사회』, 법문사.
허금우 외(2008), 『고등학교 사회』, (주)교학사.
이승중 외(2004) 『고등학교 정치』, (주)지학사.
강세중 외(2004), 『고등학교 정치』, (주)천재교육.
최명모 외(2004), 『고등학교 정치』, 대한교과서(주).
김왕근 외(2008), 『고등학교 정치』, 법문사.
오영수(2008), 『고등학교 경제』, (주)교학사.
조도근 외(2004), 『고등학교 경제』, (주)두산.
전홍렬 외(2004), 『고등학교 경제』, (주)천재교육.
김진영 외(2008), 『고등학교 경제』, 대한교과서(주).
전숙자 외(2004), 『고등학교 사회·문화』, (주)교학사.
김태현 외(2008), 『고등학교 사회·문화』, (주)금성출판사.
최현섭 외(2004), 『고등학교 사회·문화』,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이진석 외(2004), 『고등학교 사회·문화』, (주)지학사.
노경주 외(2008), 『고등학교 사회·문화』, (주)천재교육.
김병무 외(2004), 『고등학교 사회·문화』, 대한교과서(주).
도종수 외(2008), 『고등학교 사회·문화』, 법문사.

Abstract

A Study on th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in the Center of the 7th Social Studies Textbooks

Kim, Hyun Jung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With the expansion of globalization, it is required to cope with the changes of the world in education. This article will be dealt with th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in the school with the analysis of the textbook of the 7th social curriculum. In this process we will think about the new direction of th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in line with the globalization.

For the above purposes, the 7th social studies textbooks which are including the subject of politics, economics and social & culture are analyzed. This study is focused on school textbooks among others, since they are the basic material and the most important tool for learning.

Before searching for the main ideas we need to know about three points of

view regarding th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Firstly, the 'integrated nation' should rank top in the identity education. That is, the regime except national form has a communal identity as much as the 'nation' had in the modern history. It is focused o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Secondly, it is suggested that the national ideology in the identity is just a middle stage in the process of global integration. In other words, the nation state does not have strong power to the soil and the people like the old days. Therefore, interdependent relations among nations are necessary and natural. Third, even if the national ideology may be weakened from some aspects an object of identity and identification because of globalization, it may sustain its own role as usual. To meet the needs of new era, nationalism should modify its contents in some ways.

In order to investigat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I will use the concept of "interdependence" and "competition", which stands for the each aspect of th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oncepts of the "interdependence" and the "competition" are well harmonized in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in the glance look. However, in the precise looking, we can easily see the other aspects of the results. More details are followed.

Firstly, th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is depends on the area of subjects. In some parts, interdependence is strongly recommended but the other parts are not. Especially, in the area of political matters, the text books strongly mentioned that we are living in the interdependent world and cooperation is necessary and vital to survive. This attitude is ignoring that the real politics which is so called "the cut-throat competition". After focusing on cooperative relations after post cold war, it fails to show the conflicts and other related problems which is entangled.

Secondly, in the world of economics, social text books are told that competitiveness is virtue of the modern people. Without gearing the competitiveness our nation will lag behind and diminished.

Thirdly, when it comes to the environmental issues, all the text books make one accord that is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interdependence", in order to tackle the problems.

The bottom line is that th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depends of the subjects. The one said about the importance of "interdependence", and the other said about the importance of "competi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are not well organized and also the orientation of th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is still hovering. The purpose of social education is to raise world citizen who

have national identity and to meet globalism. Existing curriculum did not suggest systematical and clear plan about how to teach and what to teach to accomplish such a purpose.

Upcoming areas, social studies have a responsibility to proper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first place, the character and significance of national identity should be thoroughly examined to meet the needs of the globalization. After setting the orientation of th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we will make next steps. It should be well organized between the each subject among social studies in effectively.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서현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 논문

제 7 차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 교육에 대한 연구

200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김 현 정

제 7 차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정체성 교육에 대한 연구

서 현 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김 현 정

인 준 서

김현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족정체성 교육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세계화 추세 속에 사회과 교육에서 민족정체성 교육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7 차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민족정체성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 보고 앞으로 변화될 세계에 살아갈 우리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민족정체성 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는 제 7 차 사회과 교과서 즉, 10 학년 공통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의 교과서의 민족정체성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교과서 내용분석을 통해 민족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족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할 조작적 개념은 근대주의 시각에서 강조하는 ‘상호의존’ 과 영속주의 시각에서 강조하는 ‘경쟁’ 의 개념이다. 이들 개념의 사용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사회교과에서의 민족정체성의 성격을 분석했다. 이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사회과의 민족 정체성 교육은 영속주의 시각의 정체성 교육과 근대주의 시각의 정체성 교육이 골고루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민족 정체성 교육의 다른 면을 발견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 정체성 교육은 영역별로 내용을

강조하는 측면을 달리하고 있다. 둘째, 정치 영역의 경우 국제사회의 현실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인식하면서 상호의존적 측면만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탈냉전 이후 협력적 국제질서의 확대에만 주목하여 갈등이나 그 이면의 문제에 대한 제시가 부족한 것이다. 셋째, 경제 영역에서는 치열한 경쟁 상태를 강조하며 국가 발전을 위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이는 정치 영역과는 대치되는 인식으로 학생들의 인식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환경 문제와 같이 현재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의존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교과서는 교과마다 내용이 다른 민족 정체성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교과에서는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영속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고 경제 교과에서는 ‘경쟁’을 강조하는 근대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과에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또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사회과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인으로서의 가치·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민족 정체성 교육과 세계 시민성 교육을 시행할 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러한 태도는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사회과는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시민성 교육의 핵심을 담당하는 교과이다. 학생들에게 적합한 정체성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 정체성 교육은 사회과 교과 간 내용의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며, 어떤 내용과 형식의 민족정체성 교육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 논의와 이에 근거한 교육 내용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6
1. 세계화의 의미와 특징	6
2. 세계화 시대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	9
1) 영속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	9
2) 근대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	12
3) 절충적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	16
3. 민족 정체성 교육과 사회과	19
1) 민족 정체성의 개념과 기능	19
2) 세계화와 정체성 교육의 변화	24
3) 민족 정체성 교육과 사회과	27

Ⅲ. 연구방법	30
1. 연구대상	30
2. 연구절차	33
3. 연구 분석 기준	33
1) 민족 정체성 관련 서술의 분석 준거.....	33
2) 민족 정체성 분석 준거로서 ‘경쟁’ 과 ‘상호의존’ 의 의미 ...	39
3) ‘경쟁’ 과 ‘상호의존’ 에 해당하는 서술 조건	40
4. 연구방법	47
1) 분석 범주	47
2) 분석 항목	47
 Ⅳ. 민족 정체성 관련내용 분석의 주요 결과 및 논의	 49
1. 고등학교 사회과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 분석	49
2. 각 교과별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 분석	52
1) 10학년 사회 교과서 분석 내용	52
2)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분석 내용	59
3)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분석 내용	65
4)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분석 내용	69

V. 결론 및 제언	76
1. 분석 결과의 요약	76
2. 시사점 및 제언	79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I> 연구대상	32
<표 II> 민족정체성 교육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한 증거	38
<표 III> '경쟁'과 '상호의존' 및 중립적 서술 관련 분석 조건 요약	46
<표 IV> 고등학교 사회교과 (10학년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과서)분석	51
<표 V> 고등학교 10학년 사회교과서 출판사별 분석	57
<표 VI> 고등학교 10학년 사회교과서 영역별 분석	58
<표 VII>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단원별 분석	62
<표 VIII>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출판사별 분석	64
<표 IX>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단원별 분석	67
<표 X>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출판사별 분석	68
<표 XD>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단원별 분석	73
<표 XII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출판사별 분석	75

논문개요

본 연구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족정체성 교육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세계화 추세 속에 사회과 교육에서 민족정체성 교육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7 차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민족정체성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 보고 앞으로 변화될 세계에 살아갈 우리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민족정체성 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는 제 7 차 사회과 교과서 즉, 10 학년 공통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의 교과서의 민족정체성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교과서 내용분석을 통해 민족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족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할 조작적 개념은 근대주의 시각에서 강조하는 ‘상호의존’ 과 영속주의 시각에서 강조하는 ‘경쟁’ 의 개념이다. 이들 개념의 사용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사회교과에서의 민족정체성의 성격을 분석했다. 이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사회과의 민족 정체성 교육은 영속주의 시각의 정체성 교육과 근대주의 시각의 정체성 교육이 골고루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민족 정체성 교육의 다른 면을 발견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 정체성 교육은 영역별로 내용을 강조하는 측면을 달리하고 있다. 둘째, 정치 영역의 경우 국제사회의 현실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인식하면서 상호의존적 측면만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탈냉전 이후 협력적 국제질서의 확대에만 주목하여 갈등이나 그 이면의 문제에 대한 제시가 부족한 것이다. 셋째, 경제 영역에서는 치열한 경쟁 상태를 강조하며 국가 발전을 위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이는 정치 영역과는 대치되는 인식으로 학생들의 인식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환경 문제와 같이 현재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의존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교과서는 교과마다 내용이 다른 민족 정체성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교과에서는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영속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고 경제 교과에서는 ‘경쟁’을 강조하는 근대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과에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또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사회과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인으로서의 가치·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민족 정체성 교육과 세계 시민성 교육을 시행할 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러한 태도는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사회과는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시민성 교육의 핵심을 담당하는 교과이다. 학생들에게 적합한 정체성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 정체성 교육은 사회과 교과 간 내용의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며, 어떤 내용과 형식의 민족정체성 교육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 논의와 이에 근거한 교육 내용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6
1. 세계화의 의미와 특징	6
2. 세계화 시대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	9
1) 영속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	9
2) 근대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	12
3) 절충적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	16
3. 민족 정체성 교육과 사회과	19
1) 민족 정체성의 개념과 기능	19
2) 세계화와 정체성 교육의 변화	24
3) 민족 정체성 교육과 사회과	27

Ⅲ. 연구방법	30
1. 연구대상	30
2. 연구절차	33
3. 연구 분석 기준	33
1) 민족 정체성 관련 서술의 분석 준거.....	33
2) 민족 정체성 분석 준거로서 ‘경쟁’ 과 ‘상호의존’ 의 의미 ...	39
3) ‘경쟁’ 과 ‘상호의존’ 에 해당하는 서술 조건	40
4. 연구방법	47
1) 분석 범주	47
2) 분석 항목	47
Ⅳ. 민족 정체성 관련내용 분석의 주요 결과 및 논의	49
1. 고등학교 사회과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 분석	49
2. 각 교과별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 분석	52
1) 10학년 사회 교과서 분석 내용	52
2)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분석 내용	59
3)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분석 내용	65
4)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분석 내용	69

V. 결론 및 제언	76
1. 분석 결과의 요약	76
2. 시사점 및 제언	79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I> 연구대상	32
<표 II> 민족정체성 교육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한 증거	38
<표 III> '경쟁'과 '상호의존' 및 중립적 서술 관련 분석 조건 요약	46
<표 IV> 고등학교 사회교과 (10학년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과서)분석	51
<표 V> 고등학교 10학년 사회교과서 출판사별 분석	57
<표 VI> 고등학교 10학년 사회교과서 영역별 분석	58
<표 VII>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단원별 분석	62
<표 VIII>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출판사별 분석	64
<표 IX>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단원별 분석	67
<표 X>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출판사별 분석	68
<표 XD>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단원별 분석	73
<표 XII>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출판사별 분석	75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화는 경제, 환경,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동태적 흐름으로서의 세계화는 세계체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영원할 것만 같던 국민국가의 위상마저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국가의 통제 하에 존재했던 국민국가의 국가 정체성은 세계 시민사회의 출현으로 예전처럼 굳건하지 못하다.

과거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에서는 학교 교육이 내부 통합의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여 민족주의 형성에 적극 개입했다. 반면, 오늘날에는 외부적으로 다른 민족 국가에 대해 배타적인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상호 유대와 공존의 흐름을 인정하면서도 고유성을 중시하는 전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즉, 세계 시민성이 강조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주체는 국가이다. 세계사회에서 한 사회를 정당하게 대변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조약, 협상, 파병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세계사회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받아들이면서도 국가적 특수성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혼란의 원인으로는 강한 민족적 성격, 단일민족적 자긍심 그리고 분단 국가라는 국가적 특징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민족과 두 개의 주권

국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통합의 요구가 남아있다.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지금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 차원의 정체성을 필요로 한다.

이미 여러 논문에서 세계화의 특질에서 기인한 다차원적 정체성의 혼란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규범적 논의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교과서 내용에 대한 분석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족정체성 교육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세계화 추세 속에 사회과 교육에서 민족정체성 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7 차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민족정체성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 보고 앞으로 변화될 세계에 살아갈 우리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민족정체성 교육의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그 성격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그 결과를 정형화하여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위적, 규범적 차원에서의 연구만으로는 사회과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민족정체성 교육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도 어렵다는 인식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며, 그럼에도 본 연구는 민족정체성 연구에 관한 다른 선행연구를 조망하면서 사회과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민족정체성 교육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고자 노력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세계화 시대 민족 정체성 교육의 개념을 살펴보고,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여, 현재 변화되고 앞으로 더욱 많은 변화를 하게 될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변화하는 교육현실에 대한 논의로 세계화 시대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본다. 세계화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사회과 교육에서의 정체성 교육에 변화를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세계화와 함께 사회과 교육의 시민성 교육에서 중시하게 된 세계 시민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체성’ 문제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민족 정체성 교육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민족 정체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민족 정체성 교육의 사회과교육적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넷째, 세계화 시대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민족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다섯째, 제 7 차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민족 정체성 관련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민족 정체성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지향적인 민족정체성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민족정체성 교육의 성격이 인류의 공존과 협력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민족적 정체성과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구체적인 분석 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근대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에서 강조하는 인류의 공존·협력과 영속주의 시각에서 강조하는 민족정체성과 경쟁력 강화의 가치가 모두 제시되고 있는가? 이 둘 중 어느 가치를 더 강조하고 있는가?

② 근대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과 영속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 등 별로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가?

③ 각 영역에서 강조하는 민족정체성 교육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분석은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주제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하며 이를 통한 교육방향에 대한 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 실천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둘째, 본 연구의 주제인 민족 정체성 관련 내용 분석 기준은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여 객관화를 시도하였으나 민족 정체성의 특성상 분석 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셋째, 민족 정체성 교육 관련 주제와 핵심 요소의 분석에 있어서 특정 개념인 민족 정체성에 관한 한정된 내용 요소를 추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1. 세계화의 의미와 특징

세계화는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회과 교육의 영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세계화란 무엇인가? 세계화에 대한 정의는 각 영역에서 나름의 목적에 맞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의 범위만큼이나 광범위하다. 미국의 전국사회과위원회(NCSS)는 세계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세계화 현상은 (1) 의사소통과 교통수단의 지구 전체 시스템의 혁명 (2) 지방,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경제의 세계 전체 경제로의 편입 (3) 일련의 특정 지방, 국가, 지역적 문화와 함께 존재하는 세계 문화로서 맺어지는 사회들 간의 늘어난 상호 작용 (4) 국내와 구체적 정치 사이의 전통적 경계선을 서서히 파괴하는 전 세계적 시스템의 발생 (5) 지구 생태계의 인간 행동의 늘어난 충격, 그리고 시스템의 제한으로부터 떠맡겨지는 인간행동에 있어서의 증가된 속박 (6) 인류의 일원으로서, 지구의 주민으로서 그리고 세계화 시스템의 참가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을 강화하는 세계적 지각인식의 확대 등이다(John Chapman, M. Eugene Gilliom, James M. Becker, Jan Tucker, 1994: 71).

따라서 세계화란 '고도의 과학 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쟁이나

협동을 통해 삶의 터전을 전 세계로 확대해 가는 현상'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강동연, 2000: 9-10).

한편 기든스(Giddens, 1998)는 세계화를 하나의 지향점으로 인식한다. 기든스는 세계화가 중심국이 패권을 확산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문화 의식과 주권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든스는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향해 나아가야 할 모습으로 '세계주의적 민족(cosmopolitan nation)' 또는 '세계시민사회' 를 제시한다. 이는 폐쇄적인 민족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 대신 다원적인 세계, 바람직한 세계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다(Giddens, 한상진 역, 1998: 265). 이렇듯 세계화는 단시간 내에 특정 공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인간과 관계된 모든 방면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변화를 포괄한다(마미화, 2005: 15).

이렇듯 세계화의 다양한 정의처럼 세계화 현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세계화 현상의 가장 중심적인 측면은 역시 세계 경제의 통합 수준이 심화된 점이다. 무역, 투자, 금융, 기술, 정보 등의 흐름이 대규모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세계적 노동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제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세계 경제가 하나의 경제 체제라는 인식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던 기업이나 지방 경제가 세계 경제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고, 국민 경제에 대한 국가의 자율적 통제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한재은, 2008: 42-43).

세계화 현상의 두 번째 측면은 수송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지리적 거리의 의미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적·물적 교류와 문화적 접촉의 기회가 크게 증가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위성을 이용한 국제적 방송네트워크의 설립으로 뉴스, 오락물, 광고 등이 다수 국가들의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동시에 전달되고 있다. 즉 세계화 현상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 문화, 정보, 기술 등 각 분야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세 번째 세계화 현상은 정치적 측면에서도 나타나는데 국가 안팎에서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여 개인, 기업, 국제적 비정부 단체, 국제기구들 사이에 복합적이고 긴밀한 상호작용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내 정치, 국제 정치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하고 정치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를 요청하고 있다.

끝으로, 세계화 현상은 지방화 현상을 동반한다. 지방화는 지역 사회 공동체가 정치적 의사결정과 집행, 경제적 자원의 관리, 문화의 창조 및 향유 등의 주요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중앙 중심의 체제로부터 지방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화 현상을 보다 넓게 보면 지방자치의 의미뿐 아니라 소규모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위한 정치를 포함한다. 즉 소수민족의 자치와 분리 독립의 요구, 장애인들의 권리요구, 동성애자들의 권리 요구 등 다양한 특수 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국가에 대한 새로운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김태준, 2003: 21-22). 즉, 세계화는 보편성과 동질성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개별성과 특수성을 요구한다.

2. 세계화 시대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

여러 분야에서의 변화를 가져온 세계화는 민족 정체성 교육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럼 세계화 시대에 민족정체성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민족정체성 교육에서 민족주의나 민족국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그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 지금부터 민족정체성 교육의 세 가지 흐름을 살펴보기로 한다(이지명, 2000: 51-68).

1) 영속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

이 시각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화 흐름 속에서도 민족·민족주의가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역할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세계화의 반대 경향으로 전쟁과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민족주의의 극대화 과정에 주목한다. 이 시각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또는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와 같은 물음에 대해 집단(민족)정체성을 역할을 중시한다.

민족국가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관점으로 기든스의 주장을 보자. 그는 민족국가로의 지향은 인간사회의 본질에 가장 합당한 사회제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며 그러한 성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Giddens, 1993 : 428).

린드의 경우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전개한다. 국제정치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힘은 민족주의이며, 민족주의의 쇠퇴를 논하는 것은 거대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그는 민족주의가 지난 200년간 가장 강력한 정치적 힘이 되어 왔다고 보고 있다(Michael Lind, 1994: 87-89).

민족·민족주의 유지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스미스를 들 수 있다. 그는 민족·민족주의를 근대 역사적인 산물로 파악하는 근대주의적 민족주의 시각에 반대한다. 민족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전 생산양식을 관통하는 불변적인 것”이며 “민족은 결코 상부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하부구조”(A.D.Smith, 임지현 역, 1980: 313)라고 주장한다. 민족은 근대 민족 국가 형성기에 국민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에 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재한다는 것이다. 민족은 매우 강력한 사회적 유대이며,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이해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민족주의는 이와 같은 근원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개인적 정체성의 확실한 원천이 되어왔다. 민족은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 윤리 공동체로서 상상됨으로써 자기 결정을 위한 중요한 초점을 제공해 왔다(Giddens, 1998: 197)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긍정적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와 동시에 민족국가는 그 구성원들에게 충성심과 자긍심을 일깨워 민족의 원동력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한 민족의 앞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민족의 독특한 덕목과 역사, 문화 등을 전수해 줌으로써 그 민족은 일정한 특징을 갖춘 확고한 공동체로 지속·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민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민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려면 자신의 민족 국가의 독특한 덕성과 덕목을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하며, 바로 이 과정에서 민족의 정체성과 동일성을 확립하려는 교육이 진행된다.

이러한 교육은 근대 국민국가가 성립한 이래 공교육이 국민 형성(nation building)을 목표로 교육을 시작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간의 전쟁이나 경쟁에서 자국의 생존을 지키고, 국가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개인의 능력 함양과 국민적 통합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과 같이 분권적인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국민 감정의 육성’을 강조하였고, 미국은 사회 통합을 위한 ‘올바른 시민’의 육성을 민족 교육의 목표로 내세웠다. 우리의 경우는 해방이 되어 좌우 이념 대립의 구도 속에서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 통일의 민족적 과제를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통합보다는 상처받은 민족적 감정을 치유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요청되었다(심성보, 1995: 284).

이에 따라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학교 교육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애국애족교육’을 진행하여 온 것이다.

이런 경향의 민족주의는 자기가 소속된 민족의 힘, 부, 지위를 증대하고 독립과 발전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는다. 자기 민족의 독립과 발전을 강조하다 보면 타 민족과의 갈등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의 증대는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을

유발하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다른 민족 혹은 국가와의 경쟁에서 자국 혹은 자기 민족은 반드시 살아 남아야 함은 물론이고 또한 부강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또한 타민족·타국과의 경쟁에서의 승리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 경쟁력 강화에 대한 교육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교육의 흐름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자기 문화의 우수성만을 강조하게 되고 다른 문화의 수용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다.

2) 근대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

현대 국제사회의 몇 가지 중요한 변화, 즉 세계 정부로의 지향으로 여길 수도 있는 국제기구의 등장, 자본 국제화의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화 사회의 도래 등으로 민족주의와 민족국가는 소멸될 것으로 보는 자유주의적 시각이 있다(이지명, 2000: 60).

이 시각에 의하면 민족주의는 세계화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이며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정체성 교육에서 민족과 민족주의는 불필요한 것이며 세계주의를 실현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 관점은 민족 정체성 문제를 민족국가의 권력과 강대함에 대한 긍지보다는 오히려 '보편적 이념'을 인정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민족정체성은 역사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내용과 구조에 따라 언제나 바뀔 수 있다고 보는 논리이다(이지명, 2000:61).

민족과 국가는 근대적 개념의 산물이며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은 실체에

의존하며 집권세력이 국가 성립시기 국민의 일체감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논리이다. 역사적으로 민족이나 국가는 오랫동안 존재해온 실체도 아니고 실은 근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특수한 현상이라는 뜻이다. 민족이 유구한 역사도 뿌리깊은 생명력도 갖고 있지 않다면 민족에 기반한 국가라는 존재도 다 만들어진 것이 되는 것이다.

앤더슨은 민족을 ‘사회·문화적으로 구축된 현상’으로 보는 인류학적 입장을 취한다.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는 자본주의의 대중매체 즉, 신문, 소설 등의 인쇄물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B. Anderson, 1996: 26).

후쿠야마는 탈냉전기의 민족주의의 약화를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이라 설명했다. 그는 서구의 자유주의가 모든 이념적 경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본다. 따라서 인류 역사에서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할 대안으로서의 이데올로기가 없으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역사 자체의 종말 또는 인류의 이데올로기적 진화의 종식이라는 것이다(F.Fukyuama, 이상훈 역, 1992).

홉스봄의 경우도 민족의 쇠퇴에 대한 측면에서는 견해를 같이한다. 그는 20세기 말의 민족주의 혹은 인종주의적 정치 현상은 19세기 초의 민족 또는 민족주의와는 기능적으로 다르다고 인식한다. 그는 민족주의는 더 이상 역사발전의 주요한 힘이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E.J Hobsbaum, 1994: 216). 또한 민족주의를 근대적 현상으로 규정하며 세계화의 진전으로 쇠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E.J Hobsbaum, 1994: 217).

드러커의 경우는 민족주의 쇠퇴를 다른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그는 국가의 경제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자본의 국제화, 민족적 동질성을 파괴하는 정보의 통제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민족주의는 포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도 환경, 국제적 범죄, 군비통제 등의 산적한 문제는 민족주의에 기초한 정체성을 흔드는 범 지구적 문제들로 규정한다. 즉, 문제의 양상이 하나의 국가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기구는 개별 국가의 주권의 장벽을 허물고 민족 국가의 시민과 조직들을 직접 통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어야 한다. 이런 기구들은 민족국가들의 상위에 존재하는 초월적 기구이다(Peter F. Druker, 1993: 220).

즉, 자본, 정보, 환경, 범죄의 세계화로 인해 민족국가는 자신의 주권을 훼손당하게 되고 이 가운데 개별국가의 주권을 초월한 직접적인 통제력을 지닌 초국적 정치기구가 건설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민족에서 찾던 자신들의 집단 정체성을 초국적 정치체계 혹은 세계정부에서 찾게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닐젠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세계 정부에 대한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 정부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입헌적 민주제와 같은 민주정부이고 연방정부여야 한다고 말한다(Kai Neilsen, Steven Luper-Foy ed, 1988: 265). 느슨한 연방제도를 가진 세계정부는 다양한

문화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독립주권을 양도하는 체제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닐젠에 따르면 세계정부의 느슨한 연방주의는 그 구성원들의 삶의 중요한 영역들에서 먼저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고, 민족국가 체제에서보다 상호 효율적인 협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Kai Neilsen, Steven Luper-Foy ed, 1988: 266). 그래서 민족국가 없이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즉, 근대주의 민족 정체성의 시각에서는 국가 간의 상호의존적 상황을 중시하게 되고 국가 간 상호의존성 및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더 나아가 민족국가를 초월하는 초국가적 정치체계의 수립에까지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민족이나 국가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면 국가 간의 경쟁이나 대립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의 발전이나 부강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한 교육도 필요 없다. 오히려 상호의존적인 국제 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강조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태도와 의무를 강화하는 교육을 시행할 것이다

정체성 교육은 민족 정체성 교육이 지니는 배타적 성향을 희석하고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이나 경쟁심보다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나 보편적 인권의 존중을 더욱 강조하는 교육을 시행할 것이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전 지구적 문제의 심각성 및 그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동과 상호의존적 환경에 대한 교육에 집중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세계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독립 주권을 양도하는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세계 정치 중심의체로서 민족주의가 생명을 다했음을 주장하는 위의 논의는 궁극적으로는 세계 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정치체제의 형성에 역행하는 장애물로 민족주의는 제어되고 극복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이지명, 2001: 66).

3) 절충적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

지금까지 세계화 추세에 따라 민족·민족주의의 양극단의 관점을 살펴 보았다. 한편에서는 민족이나 민족주의는 과거에 그러했듯이 언제나 개인의 정체성의 고향이자 강력한 본거지로 작용할 것이며 세계화 흐름은 오히려 이런 경향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따른 정체성 교육은 국제 사회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고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여전히 민족국가는 의미 있는 정체성 단위이며,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족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이나 민족주의가 더 이상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정체성의 영역에서의 개인에게 더 이상 소속감을 제공해 줄 수 없으며 이제는 더 큰 공동체에 정체성의 영역을 넘겨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정체성 교육의 내용도 민족국가의 발전이나 국제적 경쟁에서의 승리의 중요성에 대한 것보다는 국제적인 환경문제의 발생과 인류 공통의

과제에 대한 국가간 협력이나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강조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나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민족주의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어떤 내용의 민족주의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민족주의는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함께하는 동태적인 개념이다.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서부터 우리는 민족주의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변화는 가만히 현상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런 변화를 만들기 민족정체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변화하지 않는 민족주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라이시의 영속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경고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생각은 국가 내의 상호 희생을 이끌어 내지만 쉽게 외국의 모든 것에 대한 맹목적 애국주의적 편견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Reich, Robert B, 1995: 333). 이런 특성의 민족주의는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며 그들이 이긴다는 가정을 갖고 공공의 가치를 침해하며, 국민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그들 자신의 이익만을 증진시키려고 하고, 다른 국가들도 이에 대응하여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는 인류가 당면한 환경문제나, 인권문제 등의 공통의 과제에 대한 해결을 어렵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유연한 민족주의를 만들기 위한 민족정체성 교육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먼저 정체성 교육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의 중심에는 세계화의 흐름이 있다. 과학의 발달, 특히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 생활을 여러 가지 면에서 바꾸어 놓고 있다.

여전히 우리가 민족국가의 발전과 부강을 꿈꾸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민족주의가 적응하여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종적, 종족적, 혈통 중심적 민족주의에서 시민적, 공민적,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적, 공민적 민족주의는 민족 구성원이 평등한 권리를 보유하는 시민으로 구성되며, 주권이 모든 국민에게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적 성격을 갖는 민족주의이다(박정원, 1997: 69).

하버마스는 민족 정체성과 시민권의 연관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위르겐 하버마스, 1996: 73-92). 그는 민족정체성에 의해서 시민이 통합되는 과정이 아니라 시민권에 의해서 민족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족적이나 문화적인 특수성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정체성의 추구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민족 정체성 교육은 영토적 종족적 배타성에 기반한 정체성 교육이 아니라 그런 기반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지명, 2000: 67).

다시 말하면, 정체성 교육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기존의 배타적이고 지나치게 경쟁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화로 인하여 등장한 다양한 정체성의 단위들에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기를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가치들도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다른 가치들이란 보편적인 인권, 세계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더 큰 연대 및 상호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즉, 상호의존적 환경에만 교육의 방향을 조정해 ‘너’와 ‘나’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게 되어 나와 민족을 잃는 교육도 아니며, 그렇다고 다른 이가 경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패배하게 되며, 치열한 경쟁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경쟁력의 강화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3. 민족 정체성 교육과 사회과

세계화 시대 민족 정체성 교육의 세 가지 방향을 살펴보았다. 세계화 시대 민족 정체성 교육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민족 정체성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1) 민족 정체성의 개념과 기능

(1) 민족 정체성 개념

민족정체성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며 어느 학자의 개념이 정확하고 어느 학자의 개념이 맞지 않다고 말하기도 곤란할 만큼 다의적인 개념이다. 먼저 민족 정체성과 혼용되는 표현부터 살펴보고 그 후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자.

민족정체성(national identity)은 보통 민족의식(national consciousness), 민족감정(national sentiment), 국민성 또는 민족성(national character)과 일상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민족의식이란 자신이 하나의 민족에 속하고 있다는 자각임과 아울러 자신의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생동적인 감정이며 자부심이다. 민족감정은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을 구별하는 데서 파생되는 자연스런 감정으로 우리 것에 대한 애착심과 긍지 및 자부심 등이 그 요소라 할 수 있다. 국민성 또는 민족성은 한 사회의 성인 성원들 사이에 특징적인 상당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인성 특성과 형태로 정의된다(홍은화, 1995: 77).

민족 정체성이라 말할 때는 동질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민족적인 특성-개성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민족적 차원에서 자기 존재를 누구로 인식하는가(어떤 민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가)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 전자는 혈통이나 문화 같은 객관적 지표들의 차이에서 본 것이며, 후자는 개개인들의 소속의식으로 본 것이다. 이 소속의식으로의 민족 정체성은 민족적 공동운명의식이나 동포애-애국심 같은 본격적인 민족주의적 감정-사상의 정서적 토대가 된다 할 수 있다. 민족적 결속과 통합의 동력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은 전자보다는 이 후자적 의미로의 민족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지명, 2000: 39).

즉, 민족 정체성은 개인적으로는 특정한 ‘민족’의 일원이라는 심리적 귀속성의 근간이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 문화적 동일성을 구성하는

바탕이다. 그것은 성, 계급, 지역, 종교와 같은 다양한 집합적 정체성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적 기반을 갖고 있다(이지명, 2000:41-44).

블룸(Bloom, W.)은 민족정체성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민족적 상징들에 대하여 동일한 동일시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 민족의 상징들을 내면화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즉, 민족 정체성이 존재하면 민족적 상징들에 대한 위협이 되거나 상징들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의 심리적 집단(one psychological group)으로 행동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한다. 또한 그는 민족 정체성이 한 나라안에서 가장 광범위한 정체성으로서 이론적으로는 민족 정체성의 대상 범위가 인구 전체를 포괄하며, 그것은 정치적, 종교적, 문호적, 에스닉적 차이들을 모두 초월한다고 주장한다(정호영, 2001: 69).

타미르(Tamir, Y)도 민족정체성이 성원들에게 근대적 삶의 노이로제(neurosis), 소외(alienation), 무의미함(meaninglessness)을 극복하고 존재론적 안정감(ontological security)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정체성 유형이라고 본다(정호영, 2001: 70).

홀(Hall, J. A.)도 마찬가지로 민족이라는 관념은 기본적으로 통합적 관념으로서 계급, 다양한 문화적 배경, 에스닉 배경, 지역적 배경 등을 모두 포괄한다고 본다(정호영, 2001: 71).

지금까지 논의한 여러 학자들의 개념 정의를 정리해 보면 민족 정체성은 인간이 갖는 정체성의 한 부분이며, 공유된 민족적 특성들로 인해 어느 한

개인이 어느 특정 민족 집단에 느끼는 소속감(a sense of belongs)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민족정체성을 ‘개인이 특정 민족에 소속되는 것이 자기에게 감정과 가치의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자기가 어떤 민족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라고 개념화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민족 정체성 교육은 개인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교육이다. 즉, 문화공동체로서 민족의 특수한 이야기를 존중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민족적 정체성의 확보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민족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한 민족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민족정체성의 기능

민족 정체성은 고도로 분화된 현대 산업사회에서 개인에게 의미 있는 심리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효과는 바로 민족이 갖는 고유의 힘과 역사의 격랑을 넘어 현재까지도 우리 삶에 존재하는 지속성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민족 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민족 정체성은 개인적 망각(personal oblivion)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역사적, 운명적 공동체’와의 동일시는 죽음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개인적 영생(personal immortality)을 확보하고, 망각됨으로부터 개인들을 구해내어 집합적 신념을 복원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워터만(Weterman, A, S.)도 민족 정체성 기능의 하나로 개인의 과거와 현재, 예기된 미래 사이에 주관적인 연속성을 제공한다고 하였다(정호영, 2001: 43).

둘째, 민족 정체성은 자부심을 제공하고 지위의 역전을 가능하게 한다. 민족 정체성은 개인적으로나 집합적으로나 자부심의 원천이 되며, 이를 통해 지위 역전(status reversal)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적으로는 자부심의 원천이 별로 없는 계층들에게 민족 정체성은 때로는 자부심의 원천이 되어 주며, 개인들은 민족과의 동일시를 통해 존재적 위엄을 유지할 수 있다. 민족적 수준에서도, 한 민족은 민족 정체성을 통해 지금은 비록 아니더라도, 세계가 언젠가는 선택 받은 민족인 자기 민족과 민족의 신성한 가치를 인식할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의 장구함과 풍부함,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을 발굴하고 그것을 현재에 되살리는 일이 민족 정체성 프로젝트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정호영, 2001: 72).

셋째, 민족 정체성은 우애(Fraternity)라는 이상을 실현하고 공동체를 형성한다. 민족 정체성은 개인-가족-에스닉 공동체 □민족을 관통하는 유대의 흐름이다. 문화적, 정치적 유대를 통하여 성원들 개인에게는 우애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민족에게는 공동체 형성의 수단이 되어준다. 이런 일들은 주로 퍼레이드, 기념식, 기념물, 선서, 화폐, 깃발, 영웅에 대한 찬양,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 등 의식이나 상징을 통해 이루어지며 민족 정체성을 통해 민족은 하나의 ‘거대가족(Super family)’이 된다(정호영, 2001: 73).

넷째, 대외적으로는, 민족 정체성이 문화적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풍부하고 장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은 그렇지 못한 민족에 대해 문화적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식인들은 보다 많은 공동체 역사를 발견하고,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화적이나 역사의 진실성은 역사의 풍부함과 다양함보다는 중요하지 않다(Smith, 1991: 160-162).

2) 세계화와 정체성 교육의 변화- 세계 시민성의 등장과 강조

최근 세계화 시대의 전개와 함께 지구상의 각 민족 간 국가 간의 긴밀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한 민족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은 다른 공동체와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차별성도 함께 강화됨으로써 사회에의 적응과 정체성의 문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서태열, 2004: 14).

이와 함께 사회과 교육에서 강조하는 시민성의 개념도 그 의미를 다양화하고 있다. 교육의 목표는 그 시대의 상황과 현실을 벗어나서 설정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의 중요 목표인 시민성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세계화 추세는 시민성의 조건들을 변화시키고 시민에게 3중적인 시민자격(국민성, 세계시민성)에 대한 정체의식(identity)을 요구하게 되었다(이승중, 1997: 51). 기존의 시민성이 국민 국가라는 울타리 속에서

대체로 단일한 지위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의미하였다면 세계화의 진행으로 대두된 새로운 시민성은 ‘같은 국민’이라는 의식보다는 ‘같은 인간’이라는 의식을 발달시켰다(설규주, 2001: 153-154).

왈쩌(Michael Walzer)는 시민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시민성을 공직(office), 책임, 부담(burden)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위, 권한(entitlement), 권리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왈쩌에 의하면 전자는 우리 삶의 중핵(core)이며 공동체주의적인 성격¹을 보인다고 하였다. 후자는 개인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입장에 더 가깝다. 그러나 모든 민족과 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는 규칙에 따르는 시민성은 지나치게 탈 역사적·탈 사회적 시민성의 위험이 있다(설규주, 2001: 152).

반면 너스봄(Nussbaum)은 애국주의 입장에서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를 조직하는 현실을 강조한다. 너스봄은 세계시민주의가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하지만 애국주의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보편적 이성을 현실적으로 법제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마미화, 2005: 47). 역시 애국주의 입장에 있는 벅(S. Bok)도 세계시민의식보다는 자기 자신에서 출발하는 세계 교육이 우선임을 주장한다(마미화, 2005: 48-4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세계 시민성은 생활 세계에 기반 한 자신의 일상에 충실하면서도 보다 보편적인 세계를 염두에 두고 일상에 대한 반성과

¹ 공동체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지향하므로 지역 시민성을 우선으로 한다. 즉, 공동체의 정체성과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² 특히 환경, 인권, 평화, 전쟁 등과 같은 쟁점에 있어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이다.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은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지식, 나의 행동은 지역에, 국가에,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나 자신의 행동이 지구 전체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나 자신이 외국인이나 외국 문화를 대하는 태도는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설규주, 2001: 169).

²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9)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민적 자질이 요구되고 이를 교육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발표한 바 있는데, 우선 세계인으로서 문제를 보고 접근하는 능력, 둘째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민감성, 셋째 지역사회,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정치적 참여 능력과 의지, 넷째 문화적 차이를 이해, 수용, 관용하는 능력, 다섯째 사회 속에서 개인의 역할에 대한 책임 의식과 협동하여 일하는 능력, 여섯째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일곱째 비판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환경을 보존하는 소비성향과 삶의 방식을 채택하려는 의지 등이다.

3) 민족 정체성 교육과 사회과

사회과는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능력을 길러주고, 그가 속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 목적에 비추 볼 때 사회과는 어느 교과보다도 시대적 요청과 사회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교과이다.

과거 사회과 교육에서는 대한 민국의 훌륭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주력하였다. 그렇다면 세계화 시대의 사회과 교육은 어떠한가를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 7 차 사회과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교육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인간상을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과는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개념과 원리, 사회 제도와 기능, 사회 문제와 가치, 그리고 연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선정, 조직하여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한다. 또한, 사회과에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현실에 대한 역사적인 시각에서의 이해 및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치·태도 등에 관한 요소를 중시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1)

즉, 사회과 교육의 목표는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과 교육을 받은 학생은 한국인임과 동시에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의도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세계 시민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남호엽, 2000: 23).

과거 사회과에서 민족 정체성 교육은 조국의 근대화에 기여하고 공산주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충성스러운 국민 양성을 목적으로 이루어 지기도 했고,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단일민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도 이루어졌다(한재은, 2008: 5). 이 시기의 정체성 교육은 혈연에 집착하면서 ‘나’와 ‘타자’의 구분을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의 사회과 교육은 경쟁의 논리만을 추구하는 배타적 성격의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을 고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민족이나 국가가 우리의 정체성 영역에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의 민족 정체성 교육의 모습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즉, 민족 정체성 교육은 한 가지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교육인 것이다.

하버마스(Habermas, J.)는 민족 정체성에 의해서 시민이 통합되는 과정과는 역으로 시민성에 의해서 민족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민족 정체성과 시민성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한상진 편, 1996 : 75-92). 그는 민족 정체성이란 종족적 자원이나 문화적 자산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일상 생활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즉, 시민이라는 개념이 민족 보다 우위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논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민족 정체성 교육은 민족 국가라는 틀 안에서 민주주의와 민족 정체성을 잘 융합하는 해결책으로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족 공동체의 원리를 보다 유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즉, 민족 정체성 교육은 영토적, 종족적 배타성을 뛰어 넘어 보다 탄력적인 것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민족 정체성 교육이 보다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의 영향력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폐쇄적 정체성에 기반한 민족보다는 다른 정체성의 단위와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탄력적인 민족 정체성은 바로 그 민족구성원의 시민적 자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즉, 현대와 같은 다원화 된 사회 속에서 다중의 정체성과 협력할 수 있는 민족 정체성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지혜롭고 사려 깊은 민주 시민의 양성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Ⅲ. 고등학교 사회과에서 민족 정체성 관련 분석대상과 분석준거

제 2장에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았다. 이 논의를 토대로 사회과 교과서의 민족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 분석대상은 제7차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관련부분 사회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과서의 내용이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아래의 <표 I>와 같다.

교과서는 교사들에게는 교수학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학생들에게는 학습자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일부 연구는 교과서와 관련된 활동이 학생들이 수업에 쓰는 시간 중에서 70-95%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회교과서의 내용과 구조 분석 및 교과서가 수업에서 학생과 교사에게 미치는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Wade, 1993: 232, 박영석, 2002: 34 재인용).

사회과는 교과 특성상 민족정체성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과이다. 교육과정 해설서에 의하면 사회과는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지식 습득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며, 민주사회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교과이다. 사회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민주시민은, ...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사회과에서는 …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 태도 등에 관한 요소를 중시한다(교육부, 1997 : 28-29).

즉, 사회과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를 함께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민족 정체성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사회과에서의 민족 정체성 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고등학교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아래 분석 준거에 의해 분석하고자 한다.

<표 I> 연구대상

연구 대상 교과서	연구 대상 관련 영역
<p style="text-align: center;">10학년 사회</p> <p>[㈜도서출판 디딤돌, ㈜두산,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지학사, ㈜천재교육, 대한교과서㈜, 법문사 총 8종]</p>	<p>IV. 환경문제와 지역문제 V.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VIII.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 IX.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p>
<p style="text-align: center;">고등학교 정치</p> <p>[㈜지학사, ㈜천재교육, 대한교과서㈜, 법문사 총 4종]</p>	<p>IV. 국제사회와 정치 V. 정치발전의 과제</p>
<p style="text-align: center;">고등학교 경제</p> <p>[㈜교학사, ㈜두산 (주) 천재교육, 대한교과서㈜, 법문사 총 5종]</p>	<p>I. 경제생활의 이해와 경제 문제의 해결 III.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V.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p>
<p style="text-align: center;">고등학교 사회문화</p> <p>[㈜교학사, (주)금성출판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지학사, ㈜천재교육, 대한교과서㈜, 법문사 총 8종]</p>	<p>III. 공동체 생활과 지역 사회 IV. 인간의 문화 현상의 이해 V. 현대사회와 사회 문제 VI. 미래사회의 전망과 대응</p>

2. 연구 절차

위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첫째, 문헌 연구로서 민족 기존 연구와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민족 정체성 교육의 개념과 내용 등에 대한 살펴본다. 특히 민족 정체성 교육에 대한 내용 변화를 시사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주목한다.

둘째,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민족 정체성 교육 내용 분석 준거를 설정한다.

셋째, 본격적인 분석 단계로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단원의 관련된 내용을 찾아 분석 준거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확인한다.

넷째, 민족 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서술 내용의 빈도와 분포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제7차 10학년 사회 교과서 8종, 정치 교과서 4종, 경제 교과서 5종, 사회문화 교과서 7종에 관련 내용을 분석한다.

다섯째, 각 교과별로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여섯째, 각 출판사별로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일곱째, 이를 토대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과 특징을 확인한다.

3. 연구의 분석 기준

1) 민족 정체성 관련 서술의 분석 준거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민족정체성 교육은 영속주의 시각, 근대주의 시각, 그리고 절충적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이 존재한다. 본 논문의 분석을 위해 단순화 하여 정리하면 <표II>와 같다. 정체성 교육은 ‘민족’이라는 개념의 성격이 그러하듯이 고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사실과 환경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 구성되는 것이다. 변화적 개념으로서 정체성은 동일시의 대상으로서 민족·민족주의의 의미는 역사적 환경과 조건에 따라 민족국가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그 내용도 달라야 하고, 그에 대한 인식도 다양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즉, 민족의 독자성과 영속성만을 추구하는 흐름과 민족에 대한 독자성과 영속성을 버리고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극단적인 흐름, 그리고 세계 시민성과 보편적 민족 정체성의 조화로운 추구로 진행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 교과는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치·태도를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인이자 세계인으로서의 의식을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기 이전 사회에서는 “상호의존”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닌 개념이 아니었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기대어 시·공간의 단축 현상을 경험하기 전까지 전세계는 자국의 영토 확장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세상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게 되고 환경, 인권, 전쟁, 마약 같은 국제 문제에 대한 세계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해서 대한민국만 안전하면

자신의 안위가 보장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민족정체성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영속주의적 민족정체성 교육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민족 국가의 발전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민족국가의 발전에 그 비중을 둔다면 국가의 생존을 중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국가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 정치 교육 영역에서는 국간 간의 경쟁을 강조³하는 국제 정치 현실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게 될 것이다.

경제 교육 영역에서는 세계화 논의에 영향을 받아 무한 경쟁이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관한 내용을 강조한다. 세계적 차원의 상호 의존의 현실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요청을 담고 있으면서 경쟁의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할 것이다.

사회문화 교육 영역에서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인종적 동질성의 강조 내지는 자국 문화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타국 문화 수용에 대한 수동적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반면 근대주의적 민족 정체성 교육은 이상주의적 세계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 중심이 된다. 즉, 민족 국가의 발전이나 생존을 위한

³ 현실주의 패러다임에서는 국익을 강조하는 국제정치 상황을 무정부 상태로 인식한다. 즉 국가들은 서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최우선적인 국가 목표인 생존(survival) 혹은 안보(survival)를 자기 스스로 돌보아야만 한다. 그 결과 안보경쟁, 무기경쟁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뒤따르게 된다. 결국 국가는 의도가 어디에 있든 국가간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상호관계가 어떻든 관계없이 국가들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박재영, 1998: 175).

노력에 대한 교육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민족’이나 ‘민족국가’는 세계정부로 가는 중간 단계에 해당하며 궁극적으로 인류의 이상은 초 국가적 세계정부의 실현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세계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 간에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내용도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에 대한 내용보다는 상호의존의 필요성과 상호의존을 통한 발전에 대한 전망이 많다.

정치 교육의 내용으로는 국제 질서를 상호의존적 체제로 인식하게 된다. 국가 간에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하게 되고 국가 이외에 다른 행위자들에 대한 역할에 인식도 강하게 드러날 것이다. 또한 국제적 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도 국가 간의 협력은 필수적 요소로 제시되게 된다.

경제 교육의 내용에서 보면 경제 분야는 그 특성상 상호의존적 성격이 강하다. 국가들은 국가간 무역, 투자, 그리고 화폐금융 면에서 상호의존적이다. 노동의 국제적 분화, 세계 경제의 유기적 연동성 등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사회문화 교육의 내용으로는 특히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인류 문화에 대한 다양성의 인정을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기르는 내용을 다루게 된다. 시민성 교육의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세계시민의식을 강조하고 그것을 기르는 태도를 중시할 것이다. 이런 교육 내용은 국가 간 상호의존 및 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행동양식을 기르게 할 것이다.

요약하면, 영속주의적 민족 정체성 교육에서는 국가 발전과 민족 번영을 위한 경쟁에 비중을 두게 되고, 근대주의적 민족 정체성 교육은 경쟁보다는 ‘상호의존’에 더 중점을 두어 세계시민으로서의 교육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다. 즉 서로 경쟁하는 환경보다는 서로 도와야 하는 상황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민족 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쟁’과 ‘상호의존’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이용하여 민족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II> 민족정체성 교육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한 준거

	영속주의 시각의 민족정체성 교육	근대주의 시각의 민족정체성 교육	절충적 시각의 민족정체성 교육
전제	세계화 추세속에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	세계화 추세속에 민족주의, 민족국가 종언할 것이라는 논리	세계화로 인한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의 특권적 지위가 약화되지만 나름의 역할 수행한다는 논리
교육 목표	통합된 민족의 정체성 강조하며, 민족과 민족문화의 독자성 강조하는 경향 ↓ 민족국가의 발전을 추구하게 되어 <u>'경쟁'</u> 을 강조	'보다 넓은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문화적 다원주의 포용해야 한다는 자유지향적 시각으로 이상주의적 세계국가 지향 ↓ 국가 간 <u>'상호의존'</u> 또는 <u>'협력'</u> 을 강조	두 가지 방향을 조화시킨 민족 정체성 교육, 즉 유연한 민족정체성 교육

2) 민족 정체성 분석 준거로서 ‘경쟁’과 ‘상호의존’의 의미

정치학 대사전에 따르면 경쟁(competition)이란 같은 목적을 두고 서로 이기거나 앞서려고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이기심의 발로로서 받아들이고 있으며, 협조·협동(cooperation)을 이타심 또는 공동성의 발로로서 받아들이고 있다(아카데미리서치, 2002: 56). 즉, 경쟁이란 같은 목적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으로 국제정치에서 무정부 상태⁴를 의미한다. 국가들은 본질적으로 상대방보다 우월한 입장을 선호하게 되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이란 일반적으로 국가간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것은 정치, 안전보장, 문화, 경제 등 많은 분야에 성립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호의존은 무역, 금융 등 경제의 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한 교류가 진행되어 국가들 간에 상호의존이 증대하여 하나의 국가만으로는 그 국가의 경제적인 성장, 고용, 물가의 안정 등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의 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각국 또는 전체의 이익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호의존론의 중심적 과제가 된다(아카데미리서치, 2002: 767).

상호의존론은 경제적인 상호의존의 의미는 그것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국가에 이익을 준다는 전제에 있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대립 상황을 기본적

⁴ 현실주의의 핵심개념인 무정부상태란 국내정부와 같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담당할 중앙정부가 부재하고 힘의 위계질서만이 존재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즉 국가가 중요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간에도 서로 대치되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박재영, 1998: 177).

전제로 하는 국제 정치론과는 크게 다르다. 따라서 상호의존이 가져오는 이익과 상호의존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자율성의 상실이라는 이율배반이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3) '경쟁'과 '상호의존' 및 중립적 서술 관련 조건

이 분석은 문장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 지며 비슷한 성격의 문장이 반복되어도 빈도에는 포함시켰다. 한 문장에서 국가간의 경쟁과 상호의존의 내용을 동시에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는 중립 성격의 문장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분석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그 특성을 분류하게 될 기준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속적 민족 정체성의 특성을 갖는 기준으로 사용될 '경쟁'관련 어구와 근대주의 민족 정체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구의 기준을 '상호의존'으로 설정하였고, 그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장 내에서 국가간의 경쟁의 심화나 가속화를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교과목의 특성상 국가간의 경쟁의 가속화나 심화와 관련해서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목 별로 그 기준을 설정했다.

10학년 고등학교 사회 영역은 일반사회교과목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교과로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과서의 영역별 기준에 근거하여 국가간

경쟁의 의미를 적용할 것이다.

정치교과목에서는 국가간의 경쟁을 강조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과 실리를 강조하는 경우 그리고 국제 경쟁력의 제고를 강조하는 경우를 경쟁에 해당하는 서술로 분류했다.

-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다(법문사, 2008: 173).
- 국제 사회의 모습을 일컬어 ‘권력 투쟁의 장’ 또는 ‘무정부적 상태’라고도 한다(대한교과서, 2004: 183).

경제교과목의 경우에는 세계화가 처음 시작된 영역으로서 다른 교과에 비해 경쟁 관련 문장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과목에서는 무한 경쟁, 국제 경쟁력 강화, 국가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어구를 경쟁 관련 어구로 분류했다.

- 세계 경제는 무한 경쟁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두산, 2004: 21).
- 최근 ‘무역전쟁’,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까지 이야기되는 치열한 경쟁의 과정에서 대립과 마찰은 불가피한 현상처럼 보인다(천재교육, 2004: 20).
-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교학사, 2008: 199).

사회·문화교과는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는 태도의 육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기르는 교과이다. 이 교과의 성격상 경쟁이라는 어구를 직접적으로 찾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국가간 경쟁이란 어구 외에도 ‘민족문화의 발전’, ‘민족문화의 창조’, ‘민족문화의 소중화’, ‘민족문화의 독창성’을 중심으로 하는 자문화에 대한 긍지 및 정체성을 강조하는 서술 및 세계화로 인한 고유 문화의 훼손을 경계하는 문장도 경쟁 관련 어구로 분류했다.

- 탁월한 우리 민족의 정신과 고도의 기술 그리고 독창성을 반영하여 우리 민족 문화로 승화 발전시켰다(금성, 2008: 179).
- 통일은 우리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며, 아시아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추적 교량 역할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금성, 2008: 256).
- 앞으로 우리 민족 문화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염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교학사, 2007: 214).

다음으로 상호의존에 해당하는 서술 조건을 살펴보자. 먼저 정치 교과서의 경우에는 국가간의 상호의존성 또는 협력을 강조하는 문장 반드시 상호의존이라는 어구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라도 한 국가의 문제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의 문장도 상호의존 관련 어구로 분류되었다.

- 세계는 점점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고 있다(법문사, 2008: 192).

- 오늘날에는 경제,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지학사, 2004: 162).
- 지구촌 문제는 어느 한 국가나 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지학사, 2004: 162).
-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커짐에 따라 세계의 어느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행은 즉시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된다(천재교육, 2004: 219).

경제 교과서의 경우에는 하나의 세계시장의 성립에 관련한 내용과 국가간의 활발한 교류에 관련한 내용, 경제관계의 상호의존성의 증대에 관한 내용, 인류공동체의 발전에의 기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국가 간의 상호 결속은 강화되고, 어느 국가든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끊고서는 존립하지 못한다(대한교과서, 2008: 230).
- WTO(세계무역기구)체제는 무역 장벽의 완화와 국경을 초월한 국제 거래 및 기업 경영 등을 강조하면서 경제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단일화되면서 상호 협력과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두산, 2004: 220).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자국의 문화발전을 강조하는 경쟁관련 어구와 대비하여 타 문화의 존중과 인류의 공동체 의식과 공존을 강조하는 측면,

세계시민의식의 강조, 국수주의적 문화인식 태도의 경계, 상대주의적인 문화수용 자세와 문화적 공존의 강조를 상호의존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 환경과 자원의 문제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금성, 2008: 209).
- 세계 수준의 폭넓은 문화 교류가 확산되면서, 종전의 문화적 편견이 완화되고 인류 공동체 의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금성, 2008: 235).
- 최근에는 한 나라의 경쟁력이 문화 상품에 의해 좌우되고 청소년들의 문화적 창조력이 한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다(법문사, 2008: 163).
- 앞으로의 지구촌은 더욱 치열한 경쟁과 갈등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법문사, 2008: 229).
- 다른 문화들과의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래적인 문화 요소의 대량 유입으로 점차 우리 민족 문화의 정체성이 위협당하고 있다(교학사, 2008: 214).
- 외래 문화의 홍수 속에서도 민족 문화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교학사, 2008: 214).
- 우리는 지구는 하나이고, 세계도 하나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교학사, 2007: 271).

마지막으로 중립적인 서술로 분류한 예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오늘날의 국제 사회는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탈냉전,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무역기구체제와 경제 블록화에 따른 경쟁의 격화,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지구촌 공동체의 형성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지학사, 2004: 180).
-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가속화되고 블록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협력과 경쟁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교과서, 2008: 192).
-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문화적 세계화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천재교과서, 2008: 196).

지금까지 상술한 분석 조건을 요약하면 <표Ⅲ>과 같다.

<표Ⅲ> ‘경쟁’과 ‘상호의존’ 및 중립적 서술 관련 분석 조건 요약

기준 과목	경쟁	상호의존	중립
정치	“자국의 이익과 실리”, “국제 경쟁력의 제고”를 강조하는 문장	“국가간 상호의존성 및 협력”을 강조하는 문장과 상호의존의 의미 나타내는 문장	예) “경제의 블록화에 따른 경쟁의 격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지구촌 공동체의 형성...” (지학사, 2004: 180)
경제	“무한 경쟁”, “국제 경쟁력 강화”, “국가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문장	“단일 시장”, “국가간 활발한 교류”, “상호의존성의 증대”, “인류 공동체의 발전의 기여” 와 관련된 문장	예)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가속화되고 ..., 협력과 경쟁 양상이 복합적으로 ...”. (대한교과서, 2008: 192)
사회·문화	“민족문화의 발전”, “민족문화의 창조”, “민족문화의 소중화”, “민족문화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문장과 “세계화로 인한 고유 문화 훼손을 경계하는” 문장	“타문화의 존중”, “인류공동체의식과공존”, “세계시민의식” 을 강조하며 “상대주의적 문화수용자세”, “문화적 공존”을 강조하는 문장	예)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문화적 세계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천재교과서, 2008:196)

4.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교과서에 대한 내용 분석 방법(content analysis)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자료를 읽어가면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분석 준거로 제시한 단어나 내용이 등장하는 문장을 하나의 분석 단위로 분석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도표 및 그림, 탐구 활동은 그 분석 단위에서 제외하였다.

1) 분석 범주

분석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민족 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원별로 분석하였고 비슷한 성격을 지닌 단원의 교과간 일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과간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출판사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틀로 제시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의 반영도를 확인하였다.

2) 분석 항목

분석은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중점을 둔 항목은 분석기준에서 제시한 내용의 등장 횟수를 나타내는 빈도수로, 이를

기준으로 민족 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진단하였다.⁵ 다음으로는 빈도수와는 별도로 출판사별로 해당 영역의 등장 빈도수를 비교해 봄으로써 민족 정체성 교육의 학습 내용을 양적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교과간 민족 정체성 교육의 특성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문항의 빈도수와 서술경향을 분석해 보았다.

⁵ 본 연구의 객관도와 신뢰도의 유지를 위해 3회에 걸쳐 관련 항목의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다른 연구자에게 관련 항목의 검토를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IV. 민족 정체성 관련 내용 분석의 주요 결과 및 논의

이번 장에서는 분석 결과 전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우리 나라 고등학교 사회과의 민족정체성 교육의 내용과 각 교과별 민족정체성 교육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제7차 고등학교 사회과목의 민족정체성 교육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고등학교 사회과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 분석

제 3장의 분석 준거에 의해 고등학교 사회교과 전반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표IV참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고등학교 사회교과 전체 즉 10학년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교과서의 민족 정체성 관련 내용은 국가간의 상호의존적 속성을 나타내는 문장이 49.21%로 경쟁적 속성을 나타내는 문장이 40.12% 그리고 국가간의 관계를 경쟁적이면서도 상호의존적인 상황으로 나타낸 문장이 10.67%로 나타났다. 통계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 사회과의 민족 정체성 교육은 매우 이상적이다.

그러나 교과별로 그 성격을 분석하면 그 내용은 변화를 갖게 된다. 먼저 10학년 공통사회 영역의 경우에는 상호의존을 나타내는 문장이 49.30%로 경쟁을 나타내는 문장이 41.78%이다. 정치과목은 상호의존을 나타내는 문장이 74.32%, 경쟁을 나타내는 문장이 17.57%이며, 경제과목은 상호의존을 나타내는 문장이 36.36%, 경쟁을 나타내는 문장이 48.18%이다.

사회·문화과목은 상호의존을 나타내는 문장이 44.95%, 경쟁을 나타내는 문장이 44.04%이다.

10학년 사회과목과 사회·문화 과목은 비교적 상호의존과 경쟁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장이 비슷한 통계를 보이고 있으나, 정치과목에서는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 상호의존의 경향을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제 영역에서는 다른 10학년 사회과목이나 사회·문화 과목에 비해서 경쟁을 강조하는 문장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 같은 통계치의 의미를 좀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각 교과별로 분석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연구 대상 교과의 해당 단원의 성격을 분석하여 민족정체성 교육의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표IV> 고등학교 사회교과(10학년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과서)분석

교과	교과서	총문항	상호의존	경쟁	중립
사회 (8종)	㈜교학사	34	14	17	3
	㈜도서출판 디딤돌	30	18	9	3
	㈜중앙교육진흥 연구소	27	15	9	3
	㈜지학사	32	18	11	3
	법문사	27	11	15	1
	㈜두산	19	5	11	3
	㈜천재교육	26	10	14	2
	대한교과서㈜	18	14	3	1
	소계	213	105	89	19
백분위	100%	49.30%	41.78%	8.92%	
정치 (4종)	㈜지학사	26	20	5	1
	대한교과서㈜	12	9	1	2
	㈜천재교육	19	16	2	1
	법문사	17	10	5	2
	소계	74	55	13	6
백분위	100%	74.32%	17.57%	8.116%	
경제 (5종)	㈜두산	17	8	6	3
	대한교과서㈜	15	10	4	1
	법문사	23	10	9	4
	㈜교학사	16	3	12	1
	㈜천재교육	39	9	22	8
	소계	110	40	53	17
백분위	100%	36.36%	48.18%	15.45%	
사회문화 (7종)	㈜금성출판사	25	14	8	3
	대한교과서㈜	4	0	2	2
	㈜중앙교육진흥 연구소	14	8	3	3
	㈜지학사	23	10	13	0
	㈜천재교육	15	7	5	3
	법문사	21	7	14	0
	㈜교학사	7	3	3	1
	소계	109	49	48	12
백분위	100%	44.95%	44.04%	11.01%	
총계		506	249	203	54
백분위		100%	49.21%	40.12%	10.67%

2. 각 교과별 민족정체성 교육의 내용 분석

1) 10학년 사회교과서 분석 내용

10학년 사회교과서에서는 상호의존의 경향을 나타내는 문장이 49.30% 경쟁의 성격을 띠는 문장이 41.78%, 중립적 성격을 드러내는 문장이 8.92%로 나타났다.

먼저 교과서 별로 그 수치를 살펴보면 경쟁의 수치가 높은 교과서가 4종[(주)교학사, (주)두산, 법문사, (주)천재교육]이고 상호의존의 수치가 높은 교과서가 4종[(주)도서출판디딤돌,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지학사, 대한교과서(주)]으로 출판사별로 그 성향이 상이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분석 대상 문장도 교과서 별로 보면 경쟁과 상호의존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는 교과서도 있지만 그 간격이 매우 크게 나타내는 교과서도 있다(표V 참조).

다음으로 민족 정체성 교육의 성격이 교육하는 단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문장이 나타나는 단원을 살펴보았다(표VI 참조). 10학년 사회교과의 분석 해당 제4단원 환경 문제와 지역문제, 제5단원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제8단원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 제9단원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제10단원 사회 변동과 미래 사회 등이다.

제4단원의 환경 문제와 지역 문제 단원을 보자. 이 단원은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 확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간 환경 문제와 지구적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생활 기반 시설의 입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지역 갈등 및 지역 분쟁,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구성된 단원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31). 이 영역에서는 상호의존의 경향이 뚜렷했다. 해당 진술의 건수는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진술이 상호의존적 경향을 나타냈다. 해당 문장이 총 24개의 모든 문장(68.42%)이 상호의존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그 원인과 대책이 한 국가만의 노력과 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국가간 상호의존과 협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 한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가 인접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예는 흔히 있다(디딤돌, 2004: 120).
- 인류가 잘 살 수 있는 ‘하나뿐인 지구’라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지구촌은 환경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제 협약을 체결하고 실천을 추진하고 있다(두산, 2004: 124).
- 지구 온난화 현상이나 오존층 파괴와 같은 환경 문제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과제로서,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디딤돌, 2004: 122).

제5단원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단원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경제, 문화의 지역 간, 국가 간 교류가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의해 확대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세계화를 국제 간의 상호 협력 및 교류와 관련 지어 설명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는

단원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33-34). 특히 세계화의 현상을 소개하는 단원으로서 국가간 지역간의 상호의존적인 상황에 대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상호의존의 성향을 나타내는 문장이 61.54%이고 경쟁의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이 30.77%로 국가 간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의 장벽은 점차 의미가 없어지고, 국가 간에 노동, 자본, 재화가 자유로이 이동하고 있다(지학사, 2004: 161).
-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은 이동에 따르는 위험을 줄여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며, 그에 따라 지역과 지역 사이의 상호 의존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고 있다(디딤돌, 2004: 158).

제8단원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 단원은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경향이 아니라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선회한다. 이 단원에서는 경제의 세계화 과정에서 확대되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 교류를 협력과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게 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40-43). 특히, 대부분의 교과서에 국제 경쟁력의 강화의 중요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 실제 학생들이 수업에서 느끼는 수치는 통계상의 수치보다 더 경쟁적인 상황에 가깝게 다가갈 것이다. 대상 문장 41개 중 28개 문장 68.29%가 경쟁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었다. 제5단원에 세계화 현상을 설명하면서는 국가간의 상호의존적 상황을 강조하고, 제8단원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 먼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두산, 2008: 223).
-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혁신을 게을리 하거나 비효율적인 기업들은 가차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교학사, 2008: 237).

제9단원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단원에서는 다른 단원에 비해서 중립적인 서술의 증가가 많고, 상호의존을 중시하면서도 경쟁의 측면도 나타나 있다. 공동체 생활의 여러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호의존적 경향의 서술이 대부분이며, 문화 변동과 민족문화의 발전과 관련해서도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면서 상호의존적 상황에 대한 문장이 많았다.

- 오늘날 우리는 지역,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지학사, 2004: 270).

제10단원 사회변동과 미래사회 단원에서는 연구주제 관련 문장이 72개로 비교적 많은 진술을 보인 단원이다. 이 단원은 제8단원과 마찬가지로 경쟁의 측면이 부각된다.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단원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더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대변혁의 시대와 관련해서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한 상호의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많이 나타나지만, 한국의 미래와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중
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국가 생존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영역에
걸쳐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보화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상호의존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지학사, 2004: 297).
- 국가 간의 협력과 연계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교학사, 2008: 290).
- 세계화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 남아 대변혁을 이끌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교학사, 2008:291).
- 우리의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지향적
전략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천재교육, 2008: 299).

결론적으로 사회교과서의 단원 별 분석 결과를 통해 해당 단원의 성격에
따라 우리 교과서에서 나타내는 경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경제적인
행위의 합리적 선택과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쟁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환경문제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상호의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교과서 전체적으로는 상호의존적 문항의 수가 많다고 하지만, 단원의 성격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 고등학교 10학년 사회교과서 출판사별 분석

출판사	분석내용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주)교학사	14	17	3	34
(주)도서출판디딤돌	18	9	3	30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15	9	3	27
(주)지학사	18	11	3	32
법문사	11	15	1	27
(주)두산	5	11	3	19
(주)천재교육	10	14	2	26
대한교과서(주)	14	3	1	14
소계	105	89	19	213
백분위	49.0%	41.8%	8.2%	100%

<표VI> 고등학교 10학년 사회교과서 영역별 분석

대단원	출판사	분석내용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4. 환경 문제와 지역 문제	㈜교학사	6	0	0	0
	㈜도서출판 디딤돌	3	0	0	3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	0	0	2
	㈜지학사	3	0	0	0
	법문사	3	0	0	10
	㈜두산	2	0	0	2
	㈜천재교육	2	0	0	2
	대한교과서㈜	3	0	0	0
	소계	24	6	0	19
	백분위	100.00%	0.00%	0.00%	100.00%
5.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출판사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교학사	2	2	0	4
	㈜도서출판 디딤돌	8	0	1	9
	㈜중앙교육진흥연구소	7	2	0	9
	㈜지학사	3	0	0	3
	법문사	1	6	0	7
	㈜두산	1	1	0	2
	㈜천재교육	0	1	2	3
	대한교과서㈜	2	0	0	1
	소계	24	12	3	39
백분위	61.54%	30.77%	7.69%	100.00%	
8.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	출판사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교학사	1	4	0	5
	㈜도서출판 디딤돌	2	3	0	5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	1	0	3
	㈜지학사	1	6	1	8
	법문사	0	2	0	2

	㈜두산	0	6	2	8
	㈜천재교육	3	5	0	8
	대한교과서㈜	1	1	0	2
	소계	10	28	3	41
	백분위	24.39%	68.29%	7.32%	100.00%
9.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출판사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교학사	2	1	1	4
	㈜도서출판 디딤돌	2	1	1	4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	1	2	4
	㈜지학사	3	0	2	5
	법문사	6	6	1	13
	㈜두산	1	0	0	1
	㈜천재교육	3	0	0	3
	대한교과서㈜	1	1	1	3
	소계	19	10	8	37
	백분위	51.35%	27.03%	21.62%	100.00%
10. 사회 변동과 미래 사회	출판사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교학사	3	10	2	15
	㈜도서출판 디딤돌	3	5	1	9
	㈜중앙교육진흥연구소	3	5	1	9
	㈜지학사	8	5	0	13
	법문사	1	1	0	2
	㈜두산	1	4	1	6
	㈜천재교육	2	8	0	10
	대한교과서㈜	7	1	0	8
	소계	28	39	5	72
백분위	38.89%	54.17%	6.94%	100.00%	
총계					182

2)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분석 내용

정치 교과서의 경우 분석 해당 단원은 제4단원 국제사회와 정치와 제5단원 정치발전의 과제이다. 이 두 단원 모두 경쟁보다는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4단원의 경우 상호의존에 관련된 진술은 72.41%, 경쟁에 관련된 진술은 18.97%이며, 제5단원의 경우는 상호의존 관련 진술은 81.25%, 경쟁에 관련된 진술은 12.50%로 상호의존적 진술의 경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표Ⅶ 참조).

정치 교과서 분석에서 드러난 결과 중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은 타 교과에 비해 국가간 상호의존에 대한 수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출판사에 따라 숫자의 차이가 있지만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두드러진다(표Ⅷ 참조).

제4단원의 국제사회와 정치 단원은 국제 사회의 발달 과정과 국제사회의 특징을 학습하는 단원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2001)의 이 단원 개관에 의하면 이 단원을 학습한 학생들은 국제사회가 국내사회와는 달리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교과서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경쟁 관계도 언급한 교과서가 있지만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문장에 비해 그 숫자가 매우 적다. 상호의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서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갈등이 빚어짐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성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지학사,

2004: 162).

- 무엇보다도 지역, 민족, 인종 등의 특수한 이익을 앞세우기 보다는 전 인류의 이익과 번영을 고려하는 세계 시민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학사, 2004: 192).
-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은 더욱 심화되어 국제 사회는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천재교육, 2004: 190).

제5단원의 정치발전의 과제에서는 특히, 현대민주사회에서의 과제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한 국가의 문제가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주사회의 과제도 상호의존적인 환경 하에서 인식하게 되고 그런 인식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게 된다. 상호의존적 인식의 대표적인 서술은 다음과 같다.

-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면서 인류가 당면하는 문제도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협력하여 대처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가 되었다(법문사, 2004: 225).
- 현대 사회의 시민들에게는 지구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연대감을 가지고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천재, 2004: 245).

결론적으로 정치 교과서에서는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 현대민주사회의 과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상호의존적 인식과 태도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제 정치나 국제 사회가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것만큼 상호의존적이고 그들간의 관계가 평화적인 협력만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홀스티(Ole R. Holsti)가 제시한 상호의존론의 단점은 그 의미를 지닌다(박재영, 1998: 373-374). 그는 상호의존론이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의 지속성(durability)에 대한 잠재력을 과소평가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족국가는 다른 행위자들로부터의 도전을 이겨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겨낼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는 여전히 국제 사회의 주요 행위자이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으며, 여전히 국민의 충성심을 요구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힘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Hollis and Smith, 1990: 35, 박재영, 1998: 373-374).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무정부성과 안보 딜레마를 간과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교과서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낭만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앞으로 현실의 세계에서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하는 것은 교육의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갈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과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야 하는 것도 또한 교육의 의무일 것이다.

<표Ⅶ>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단위 별 분석

단원	출판사	분석 내용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4. 국제사회와 정치	대한교과서(주)	7	1	2	10
	법문사	8	5	2	15
	(주)지학사	15	4	1	20
	(주)천재교육	12	1	0	13
	소계	42	11	5	58
	백분위	72 41%	19 97%	8 62%	100%
5. 정치발전의 과제	출판사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대한교과서(주)	2	0	0	2
	법문사	2	0	0	2
	(주)지학사	5	1	0	6
	(주)천재교육	4	1	1	6
	소계	13	2	1	16
	백분위	81 25%	12 50%	6 25%	100%
총계					74

<표 VIII>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출판사 별 분석

출판사	분석내용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대한교과서(주)	9	1	2	12
법문사	10	5	2	17
(주)지학사	20	5	1	26
(주)천재교육	16	2	1	19
소계	55	13	6	74
백분위	74 32%	17 57%	8 11%	1 00%

3)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분석 내용

경제 교과서의 경우 분석 해당 단원은 제1단원 경제생활의 이해와 경제 문제의 해결, 제3단원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제5단원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다. 제1단원에서는 경제생활의 상호의존적 속성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면서 상호의존적 성향의 문장이 대상문장 16개 중 12개에 해당되어 75%로 나타났다. 제3단원에서는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관한 단원으로 경제의 학문적 속성상 합리적 선택이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경쟁을 강조하는 경향은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문장의 수가 너무 적어 분석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 제5단원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에 대한 단원으로 상호의존과 경쟁에 해당하는 문항이 30.77%: 51.65%로 경쟁의 내용을 갖는 문장이 더 많았다(표IX 참조).

특히 제5단원의 경우 10학년의 (8)국민경제의 합리적 선택 단원 중 세계 시장의 경제 경쟁과 협력이란 주제와 연계되어 있다. 10학년의 (8)국민경제의 합리적 선택 단원의 분석에서도 상호의존과 경쟁의 내용 비율은 23.39%: 69.29%로 경쟁의 내용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이 단원과는 같은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대부분 출판사의 교과서들이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한 제시가 비교적 상세하게 이루어져 있어 대상 문장의 빈도 수보다 더 강하게 경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수출 중심의 우리의 경제 구조와 세계화와 무한 경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는 국제 경쟁력의 향상이다(천재교육, 2007: 247).

- 세계적인 무한 경쟁 체제 하에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법문사, 2004: 215).

즉, 경제 교과서에서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측면의 내용이 많다. 하지만 경제 교과서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호의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법문사, 2004: 247).

<표IX>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단원 별 분석

대단원	출판사	분석내용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1. 경제생활의 이해와 경제 문제의 해결	대한교과서(주)	0	0	0	0
	(주)두산	6	1	0	7
	법문사	2	0	0	2
	(주)교학사	1	0	0	1
	(주)천재교육	3	2	1	6
	소계	12	3	1	16
	백분위	75.00%	18.75%	6.25%	100.00%
3.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출판사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대한교과서(주)	0	0	0	0
	(주)두산	0	3	0	3
	법문사	0	0	0	0
	(주)교학사	0	0	0	0
	(주)천재교육	0	0	0	0
	소계	0	3	0	3
백분위	0.00%	100.00%	0.00%	100.00%	
5.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출판사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대한교과서(주)	10	4	1	15
	(주)두산	2	2	3	7
	법문사	8	9	4	21
	(주)교학사	2	12	1	15
	(주)천재교육	6	20	7	33
	소계	28	47	16	91
백분위	30.77%	51.69%	17.54%	100.00%	
총계					110

<표 X>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출판사 별 분석

출판사	분석내용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대한교과서(주)	10	4	1	15
(주)두산	8	6	3	17
법문사	10	9	4	23
(주)교학사	3	12	1	16
(주)천재교육	9	22	8	39
소계	40	53	17	110
백분위	36. 6%	48. 8%	15. 5%	100. 0%

4)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분석 내용

교육과정 해설서(2001)에 의하면 사회문화 교과서의 목표 속에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사회·문화 현상 안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탐색하고, 민족 문화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여 민주 복지 사회 건설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고, 이와 함께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로 나아가는 미래 사회를 전망해 보고, 미래 사회에 나타날 여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영속적 민족 정체성과 근대주의적 민족 정체성 교육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문화 교과서의 경우 연구 분석 해당 단원은 제3단원 공동체 생활과 지역사회, 제4단원 인간의 문화 현상의 이해, 제5단원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제6단원 미래사회의 전망과 대응 단원이다. 해당 문장 109개 중 49(44.95%)개 문장이 상호의존의 내용을 48(44.04%)개 문장이 경쟁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표 XI 참조).

제3단원은 해당 문장의 숫자가 적어 전체 통계에는 포함시켰지만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의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제4단원은 인간 문화 현상의 이해에 대한 단원으로 문화 변동과 민족 문화의 발전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어 이 부분에서 주로 경쟁적인 내용 나타나고 있다. 법문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문화 영역도 경쟁력의 한 분야로 규정하며 문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즉, 이제는 문화 영역도 우리의 정신 세계에 대한

영역을 넘어 산업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해당 문장 40개 중 25개 62.50%의 문장에서 경쟁관련 내용이 나오고, 8개 문장 20.00%에서 상호의존 관련 내용이 나타났다. 그러나 출판사마다 성향의 차이가 크고 해당 문장의 빈도에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 외래 문화의 홍수 속에서도 민족 문화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교학사, 2007: 215).
- 개방화, 세계화 추세 속에서 문화적으로도 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이 시기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른다면, 지역 문화는 민족 문화 발전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 그 보존 및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법문사, 2008: 165).

제5단원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에서는 현대 사회 문제와 대책과 관련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교과서가 상호의존적인 내용이다. 상호의존적 내용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문장이 문제의 성격이 상호의존적이며 그 해결도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가간 협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항은 제시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 문장 12개 모두 교과서 별로 문항의 차이는 있으나 성격은 모두 상호의존적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 환경문제, 인권문제, 평등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한 사회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섰다(교학사, 2008: 271).

- 환경과 자원 문제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금성, 2008: 209).

제6단원 미래 사회의 전망과 대응은 미래사회의 발전과 변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는 단원이다. 55개 문장 중 28개 문장 50.91%가 상호의존의 내용을 23개 문장 41.82%가 경쟁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 교과서에서의 제5단원인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에서는 상호의존 30.77%와 경쟁이 51.65%로 경쟁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았으나, 사회문화 교과서의 미래 전망 단원에서는 상호의존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타났다. 두 단원 모두 교과목을 다르지만 미래 전망이라는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교과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교과서가 비슷한 단원에서도 일관성 있는 태도로 교육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구촌 정보 시대를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각종의 문화적, 인종적 편견을 제거해야 하고,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과 발전에 책임감을 갖는 세계 시민 의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금성, 2007: 238).
-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고 생활 공간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인식해야

한다(법문사, 2008: 229).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는 상호존중과 경쟁관련 내용이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의 단원별로 즉, 해당 사항에 따라서 교과서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또한 출판사마다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알 수 있다(표 XIII 참조).

<표 X>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단위 별 분석

대단원	출판사	분석내용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3.공동체생활과 지역 사회	(주)금성출판사	0	0	0	0
	대한교과서(주)	0	0	0	0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0	0	0	0
	(주)지학사	0	0	0	0
	(주)천재교육	1	0	0	1
	법문사	0	0	0	0
	(주)교학사	0	1	0	1
	소계	1	1	0	2
	백분위	50.00%	50.00%	0.00%	100.00%
4. 인간의 문화 현상의 이해	출판사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주)금성출판사	5	5	0	10
	대한교과서(주)	0	1	1	2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	0	3	5
	(주)지학사	0	0	0	0
	(주)천재교육	0	0	1	1
	법문사	1	9	0	10
	(주)교학사	0	12	0	12
	소계	8	27	5	40
	백분위	20.00%	67.50%	12.50%	100.00%
5.현대사회와 사회문제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주)금성출판사	1	0	0	1
	대한교과서(주)	0	0	0	0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	0	0	2

	(주)지학사	0	0	0	0
	(주)천재교육	4	0	0	4
	법문사	0	0	0	0
	(주)교학사	5	0	0	5
	소계	12	0	0	12
	백분위	100.00%	0.00%	0.00%	100.00%
6. 미래사회의 전망과 대응	출판사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주)금성출판사	8	6	0	14
	대한교과서(주)	0	1	1	2
	(주)중앙교육 진흥연구소	4	3	0	7
	(주)지학사	3	3	1	7
	(주)천재교육	2	5	2	9
	법문사	6	5	0	11
	(주)교학사	5	0	0	5
	소계	28	22	3	55
	백분위	51.01%	41.32%	7.27%	100.00%
총계					109

<표 XII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출판사별 분석

출판사	분석내용			
	상호의존	경쟁	중립	계
(주)금성출판사	14	11	0	25
대한교과서(주)	0	2	2	4
(주)중앙교육 진흥연구소	8	3	3	14
(주)지학사	10	13	0	23
(주)천재교육	7	5	3	15
법문사	7	14	0	21
(주)교학사	3	3	1	7
소계	49	51	9	109
백분위	44.5%	46.9%	8.16%	100.00%

V. 결론 및 시사점

1. 분석 결과의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사회교과 전체 즉 10학년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교과서의 민족 정체성 관련 내용은 국가 간의 상호의존적 속성을 나타내는 문장이 전체 문장 506개 중 249개 49.21%에 해당하고, 경쟁적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 203개 40.12%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간의 관계를 경쟁적이면서도 상호의존적인 상황으로 나타낸 문장이 10.67%로 나타났다. 적어도 통계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 사회과의 민족 정체성 교육은 영속적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과 근대주의적 민족 정체성 교육 어느 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편향된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다.

둘째, 고등학교 사회교과 각 교과별로 그 내용을 분석하면 그 내용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10학년 사회과목과 사회·문화 과목은 비교적 상호의존과 경쟁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장이 비슷한 통계 숫자를 보이고 있으나, 정치와 경제과목은 지향하는 바를 달리하고 있다. 정치 과목에서는 국가간의 관계 및 기타 문제에 있어 상호의존의 경향을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는 반면, 경제 영역에서는 다른 10학년 사회 과목이나 사회·문화 과목에 비해서 국가 경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에 우리 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내용이 많아 경쟁의 경향이 나타났다. 즉 교과

과목별로 민족 정체성 교육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각 교과서의 단원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10학년 사회 교과서의 분석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상호의존적 내용이 많지만, 단원에 따라 내용이 달랐다. 경제 행위의 합리적 선택과 미래 사회 대비 단원에서는 '경쟁'을 강조한 반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상호의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교과서의 단원 별 분석 결과를 통해 해당 단원의 성격에 따라 강조하는 내용의 태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둘째, 정치 교과서의 경우 분석 해당 단원은 제4단원 국제사회와 정치 및 제5단원 정치발전의 과제이며, 이 두 단원 모두 경쟁보다는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4단원의 경우 상호의존에 관련된 진술은 72.41%, 경쟁에 관련된 진술은 18.97%이며, 제5단원의 경우는 상호의존 관련 진술은 81.25%, 경쟁에 관련된 진술은 12.50%로 상호의존적 진술의 경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났다. 정치 교과서 분석에서 드러난 결과 중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은 타 교과에 비해 상호의존에 대한 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출판사에 따라 숫자의 차이가 있지만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따라서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는 다른 교과목들에 비해 근대적 민족정체성 교육의 특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교과에

국제환경을 인식하는 태도가 이상주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경우 분석 해당 단원은 제1단원 경제생활의 이해와 경제 문제의 해결 단원에서는 경제생활의 상호의존적 속성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면서 상호의존적 성향의 문장이 대상문장 16개 중 12개에 해당되어 75%로 었으며, 반면에 특히 제5단원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에서는 경쟁을 나타내는 문장이 51.65%로 상호의존을 나타내는 문장이 30.77% 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 교과서에서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측면의 내용이 많았다.

넷째,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의 경우 대상 문장 109개 중 49(44.95%)개 문장이 상호의존의 내용을, 48(44.04%)개 문장이 경쟁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제4단원은 인간 문화 현상의 이해에 대한 단원으로 문화 변동과 민족 문화의 발전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어 이 부분에서 주로 경쟁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나, 제5단원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에서는 현대 사회 문제와 대책과 관련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교과서가 문제의 발생과 해결에 관해서 상호의존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상호 의존의 양상을 보면 국가 간 긴밀한 협조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의 활동 내지는 문제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국간 간 상호 협조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내용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지에 대한 대책의 제시는 부족하다.

제6단원 미래 사회의 전망과 대응은 미래 사회의 발전과 변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는 단원으로 상호의존과 경쟁관련 내용의 비율이 50.91%:41.82% 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사회문화 교과에서는 상호의존과 경쟁관련 내용이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의 단원 별로 즉 해당 사항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2. 시사점 및 제언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과 민족 정체성 교육은 영속주의 시각의 정체성 교육과 근대주의 시각의 정체성 교육이 골고루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민족 정체성 교육의 다른 면을 발견 할 수 있다. 민족 정체성 교육은 과목마다 그 성향을 달리 하고 있으며, 특히 주제나 이슈에 따라서 상반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치 영역의 경우 국제사회의 현실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인식하면서 상호의존적 측면만 강조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탈냉전 이후 협력적 국제질서의 확대에만 주목하여 갈등이나 그 이면의 문제에 대한 제시가 부족한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비판적인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 대한 냉철한 인식 없이는 진정한 ‘상호의존적’ 관계는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특히, 제4단원 국제사회와 정치 단원은 국제 사회의 특징에 대한 학습내용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의 교육 내용의 보완이 요청되고 된다. 또한 정치 교육에서 현실 정치 인식에 중요한 요소인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교육 내용이 적다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경제 영역에서는 세계화·정보화의 영향으로 경제 환경이나 경제질서 측면에서는 ‘상호의존적’ 내용이 많다. 그러나 생존의 문제와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분야에서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국가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 국제 사회 질서를 설명할 때는 상호의존적 상황과 비교적 협력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정치 발전 분야에서도 국제사회는 협력과 지구촌화 된 시대의 특징을 논의하면서, 지구촌 구성원으로서 인류의 당면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협력적인 세계 구성원으로서의 자세는 경제 영역에서는 경제적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고 치열한 경쟁 상태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경쟁력을 높이는 민족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세로 변화한다. 세계화의 측면을 자국 경제의 효율성 향상에 강조점을 두어 접근하여 효율성 향상을 통한 전 세계적 부의 증진 측면에 대한 인식은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출판사 별로 대한교과서, 두산, 법문사는 상호의존적 내용이 많았고, 교학사, 천재교육은 경쟁 관련 내용이 많아 정체성 교육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사회 문제 부분 특히,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과서나 영역에 관계 없이 국제적인 협력과 상호의존의 필요성이 많이 등장한다. 환경이나 인권 등 국제적 문제는 국가간 상호의존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의 보다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의 노력보다는 국제정치의 유효한 행위자인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여 상호협력의 필요성만이 강조되고 어떤 방식으로 그런 목표를 달성할 지에 대한 방법의 제시가 미흡하다.

문화 영역의 경우에는 상대주의적인 문화 수용 자세와 문화적 공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민족 문화의 발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강조하고 있어 경쟁적 내용도 많았다. 미래 사회의 전망과 대응에서는 상호의존적 내용이 약간 우세하지만 경쟁적 전망과 혼재되어 있다. 즉 환경 문제와 같이 현재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의존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국의 현실적 이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적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과서는 교과마다 내용과 특성이 다른 민족 정체성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교과는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영속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고, 경제 교과에서는 '경쟁'을 강조하는 근대주의 시각의 민족 정체성 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문화 교과는 정치 교과와 경제 교과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과에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또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사회과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인으로서의 가치·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민족 정체성 교육과 세계 시민성 교육을 시행할 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러한 태도는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사회과는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시민성 교육의 핵심을 담당하는 교과이다. 학생들에게 적합한 정체성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족 정체성 교육의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 정체성 교육은 사회과 교과 간 내용의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지향적 민족정체성 교육은 세계화 교육을 통해서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가치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민족국가적 가치를 외면하지 않는 그런 교육이어야 한다. 이는 과거 지나치게 인종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을 띄고 있었던 민족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는 탄력적인 민족 정체성 교육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먼저, 민족정체성 교육 변화는 민족 정체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변화된 시대에 적합한 민족정체성 교육의 의미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될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민족 정체성 교육에 대한 교육적 합의를

마련한 후 그 기반 위에서 사회과 각 교과간 교육 내용의 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교과의 특성상 교육 내용의 방향이 상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과 전체적으로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을 정한 후 세부적인 부분에서 논의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현재처럼 정체성 교육에 대한 기준 없이 각 교과나 교과서에 따라 정체성 교육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과 형식의 민족정체성 교육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 논의와 이에 근거한 교육 내용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 시민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족 정체성 교육이 사회과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꼭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서 오는 현실성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1997), 『사회과 교육과정』,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2001),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부(200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 강동연(2000),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사회과 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 석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고미숙(2003), “정체성 교육의 새로운 접근: 서사적 정체성 교육”, 『한국교육』, Vol. 30, No. 1, pp. 5-32.
- 권용혁(2001), “열린공동체주의를 향하여”, 『철학연구』 제55집, pp. 225-243.
- 권세정(2006), “세계화시대 한국민족주의의 역할”, 부산대학교 대학원 정치학석사 학위논문.
- 김미숙(2002), “남북한 교과서에서 나타난 민족정체성”, 『교육사회학 연구』, 제12권 제1호, pp. 43-65.
- 김왕근(1999), “세계화와 다중 시민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28집, pp. 45-68.
- 김왕근(2000), “시민의 정치 의식과 시민 교육의 원리”, 『민주시민교육논총』, Vol. 5, No. 1,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pp. 31-53.
- 김태섭(2005), “세계화 시대의 국제 이해교육 활성화 방안”,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준(2003), “세계화 시대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 김남국(2005), “다문화 시대의 시민 :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Vol. 45 No. 4, 한국정치학회, pp. 97-121.

- 김의휘(2005),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망에 대한 비교연구-켈너와 스미스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호엽(2001), "한국 사회과에서의 민족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학위논문.
- 노찬옥(2001),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시안적 연구-세계 시민의 위상과 세계 시민교육의 방향 탐색", 『시민교육연구』, 제33집, pp. 89-108.
- 노찬옥(2003),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세계 시민성과 시민 교육적 함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 노찬옥(2004), "다원주의 시대의 세계시민 교육", 『사회과 교육』, 제43권 4호, pp. 207-224.
- 마미화(2005),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화'에 대한 관점 및 서술 내용의 분석연구: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 박아청(1984),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정민사.
- 박아청(1990), 『아이덴티티의 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 박아청(1996), 『청년과 아이덴티티』, 서울: 배영사.
- 박재영(1998), 『국제정치 패러다임』, 서울: 법문사.
- 서태열(2004), "세계화, 국가정체성 그리고 지역정체성과 사회과교육", 『사회과교육』 제43권 4호, pp.5-29.
- 신희수(2007),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사회과 수업모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설규주(1999),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시민교육",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설규주(2001), “탈국가적 시민성의 대두와 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 □ 세계시민성과 지역시민성의 조화로운 함양을 위한 후천적 보편주의 시민교육”, 『시민교육연구』 제32집, pp. 151-178.
- 심정보(1995), 『전환시대의 교육사상』,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아카데미리서치(2002), 정치학대사전(상), 서울: 아카데미리서치.
- 양영자(2007), “분단-다문화시대 교육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가능성 모색”, 『교육과정연구』, Vol. 25, No, 3, pp. 23-48.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9), 『학교에서의 국제이해교육』,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이기범(1997), “공동체주의철학과 세계화 지방화시대 한국교육의 윤리적 과제”, 『민족학연구』, Vol. 2, 한국민족학회, pp. 135-165.
- 이기복·장미정(2002), “사회과 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한 실천 방안 탐색”,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순형(1991), “민족정체감의 개념화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제7호 겨울, 한국청소년개발원, pp. 139-152.
- 이승중(1997), “지방화·세계화 시대의 시민의식”, 『사회과교육』 제24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pp. 49-63.
- 이지명(2000), “지구화 추세속의 민족정체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호영(2001), “민족 정체성 형성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미정(2002), “민족정체성 교육에 관한 연구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숙자·이인표(1999), "국제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사회과교육학연구』, 제3호, pp. 22-52.
- 진덕규(2007), "세계화와 민족주의를 생각하면서", 『담론21』, Vol. 10, No. 3, pp. 5-17.
- 최석환(2004), "세계화 시대의 민족정체성 교육의 방향-다문화적 어프로치와 관련하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용규(1992), "한국 사회과에서의 민족의식 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용규(1994), "국제화 시대의 민족의식교육", 『사회과교육』 1994. 8. 통권 제27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pp. 47-55.
- 한재은(2008), "다문화시대의 민족주의와 사회과 교육",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홍윤기(2001), "지구화 조건 안에서 본 문화 정체성과 주체성", 『사회와 철학』 Vol- No 1, 사회와 철학 연구회, pp. 33-77.
- 홍은화(1995), "한국인의 정체성 연구-민족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홍남기(2005), "세계화에 관한 비판적 담론을 수용한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진 편(1996),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하버마스 한국방문7강의』, 서울: 나남.
- A.D.Smith(1980),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임지현 역, 서울: 한겨레.
- Anderson, Benedict(1996), *Imagined Community: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윤희숙 역, 서울: 사회비평사.

- E.J Hobsbaum(1994), 『1780년대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 비평사.
- Fukuyama, F. (1995), 『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점에 선 최후의 인간』, 이상훈 역, 서울: 한마음사.
- Giddens. A(1995), 『민족국가와 폭력』, 진덕규 역, 서울: 삼지원.
- Giddens. A(1998), 『제3의 길』, 한상진·박찬욱 역, 서울: 생각의 나무.
- John Chapman, M. Eugene Gilliom, James M. Becker, Jan Tucker(1994), "Position Statement on Global education", *Social Studies in a Global Society*, N.Y: Delmar Publisher.
- Peter F. Kruker(1993),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이재규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Lind, Michael(1994), "In defense of Liberal Nationalism", *Foreign Affairs*, Vol. 73, No 3.
- Luper-Foy, Steven(ed)(1988), *Problem of International Justice*, Colorado: Westview Press.
- Reich, Robert B(1995), 『국가의 일』, 남경우 역, 서울: 까치.
- Wade, Rahima C(1993), "Contents Analysis of Social Studies Textbooks: A Review of Ten Years of Research".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Vol. 21, No. 3, pp. 232-256.

<교과서>

- 오경섭 외(2004), 『고등학교 사회』, (주)도서출판 디딤돌.
- 손봉호 외(2004), 『고등학교 사회』, (주)두산.
- 김주환 외(2004), 『고등학교 사회』,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황만익 외(2004), 『고등학교 사회』, (주)지학사.

박종희 외(2008), 『고등학교 사회』, (주)천재교육.
최병모 외(2004), 『고등학교 사회』, 대한교과서(주).
김재한 외(2004), 『고등학교 사회』, 법문사.
허금우 외(2008), 『고등학교 사회』, (주)교학사.
이승중 외(2004) 『고등학교 정치』, (주)지학사.
강세중 외(2004), 『고등학교 정치』, (주)천재교육.
최명모 외(2004), 『고등학교 정치』, 대한교과서(주).
김왕근 외(2008), 『고등학교 정치』, 법문사.
오영수(2008), 『고등학교 경제』, (주)교학사.
조도근 외(2004), 『고등학교 경제』, (주)두산.
전홍렬 외(2004), 『고등학교 경제』, (주)천재교육.
김진영 외(2008), 『고등학교 경제』, 대한교과서(주).
전숙자 외(2004), 『고등학교 사회·문화』, (주)교학사.
김태현 외(2008), 『고등학교 사회·문화』, (주)금성출판사.
최현섭 외(2004), 『고등학교 사회·문화』,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이진석 외(2004), 『고등학교 사회·문화』, (주)지학사.
노경주 외(2008), 『고등학교 사회·문화』, (주)천재교육.
김병무 외(2004), 『고등학교 사회·문화』, 대한교과서(주).
도종수 외(2008), 『고등학교 사회·문화』, 법문사.

Abstract

A Study on th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in the Center of the 7th Social Studies Textbooks

Kim, Hyun Jung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With the expansion of globalization, it is required to cope with the changes of the world in education. This article will be dealt with th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in the school with the analysis of the textbook of the 7th social curriculum. In this process we will think about the new direction of th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in line with the globalization.

For the above purposes, the 7th social studies textbooks which are including the subject of politics, economics and social & culture are analyzed. This study is focused on school textbooks among others, since they are the basic material and the most important tool for learning.

Before searching for the main ideas we need to know about three points of

view regarding th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Firstly, the 'integrated nation' should rank top in the identity education. That is, the regime except national form has a communal identity as much as the 'nation' had in the modern history. It is focused o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Secondly, it is suggested that the national ideology in the identity is just a middle stage in the process of global integration. In other words, the nation state does not have strong power to the soil and the people like the old days. Therefore, interdependent relations among nations are necessary and natural. Third, even if the national ideology may be weakened from some aspects an object of identity and identification because of globalization, it may sustain its own role as usual. To meet the needs of new era, nationalism should modify its contents in some ways.

In order to investigat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I will use the concept of "interdependence" and "competition", which stands for the each aspect of th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oncepts of the "interdependence" and the "competition" are well harmonized in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in the glance look. However, in the precise looking, we can easily see the other aspects of the results. More details are followed.

Firstly, th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is depends on the area of subjects. In some parts, interdependence is strongly recommended but the other parts are not. Especially, in the area of political matters, the text books strongly mentioned that we are living in the interdependent world and cooperation is necessary and vital to survive. This attitude is ignoring that the real politics which is so called "the cut-throat competition". After focusing on cooperative relations after post cold war, it fails to show the conflicts and other related problems which is entangled.

Secondly, in the world of economics, social text books are told that competitiveness is virtue of the modern people. Without gearing the competitiveness our nation will lag behind and diminished.

Thirdly, when it comes to the environmental issues, all the text books make one accord that is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interdependence", in order to tackle the problems.

The bottom line is that th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depends of the subjects. The one said about the importance of "interdependence", and the other said about the importance of "competi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are not well organized and also the orientation of th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is still hovering. The purpose of social education is to raise world citizen who

have national identity and to meet globalism. Existing curriculum did not suggest systematical and clear plan about how to teach and what to teach to accomplish such a purpose.

Upcoming areas, social studies have a responsibility to proper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first place, the character and significance of national identity should be thoroughly examined to meet the needs of the globalization. After setting the orientation of the national identity education we will make next steps. It should be well organized between the each subject among social studies in effectively.